www.kapcq.org

교회학교를 위한
100,000
십만번

중보기도

300명이 일년동안 매일 기도하면
십만번 기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퀸즈장로교회 교육위원회

아가페 묵상

주저 앉음 VS 주저 않음

#제자 #사역 #부르심

아무데나 아무 때나 **주저 앉는**거 아니다.
딱 일어나라 딱 힘줘라 믿는 자는 **주저 않는**거다.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 따르는거다.

고린도전서 7:24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월간 아가페 제395호 · 2017년 1,2월호 발행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 886-4040, 4347 Fax: 718) 358-7789

믿음으로 사는 교회 · 하나님 중심 / 말씀 중심 / 교회 중심

퀸즈장로교회

1월 전진의 달 / 2월 헌신의 달

아가페
agape

믿음으로 사는 교회 특집
하나님 중심 / 말씀 중심 / 교회 중심

천상의 예배, 다민족 예배
지상의 교회, 다민족 교회

방송실의 진실 혹은 거짓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QPEM 대학부/청년대학부/청년선교부

은혜로 채워주신 축복의 예배
송구영신/신년하례/특별새벽기도회/제직수련회

2017 1 & 2

피택장로 7인 릴레이 인터뷰
차상남/최원일/함용식/남형욱/채영주/최시몽/황태현

담임목사 김성국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창을 열면

일생의 창을 열면 비전이 보여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선명한 하나의 그림, 비전이 보여야 합니다.
선명한 비전은 분명한 삶, 굉장한 열정을 차례로 초청합니다.

일 년의 창을 열면 믿음이 보여야 합니다.
주님은 종종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크다. 작다. 없다.
의심으로 일 년을 살면 열매가 아니라 연기가 남을 것입니다.

한 달의 창을 열면 사역이 보여야 합니다.
제직수련회, 교회설립기념, 사순절 등 그 달의 독특한 사역이 보여야 합니다.
사역은 항상 흑자사역, 본전사역, 적자사역 등으로 결산을 맺습니다.

한주의 창을 열면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늘 함께하는 사람들, 만나거나 피해야 할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내 삶에서 사람들을 지워간다면 나도 사람들에 의해서 지워져 간답니다.

하루의 창을 열면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는 모두가 아주 특별한 날이 됩니다.
주님 없이 산 하루는 죽음의 시간과 같습니다.

When you open the window

When you open the window of your life, you must be able to see the vision that you have for your life.
You must be able to see the vision for your life, a clear blueprint of your future.
If your vision is clear, then the clearer the direction of your life may become, and soon a great passion for that vision may grow within you.

When you look out the window of a new year, you must see in your horizon the light of faith.
The Lord often sees the faith of people and says, "it is big," "it is small," or "there is none"
If you allow doubt to loom in the horizon, you will find that your faith bears little to no fruit. Instead of fruit you may find nothing but a cloud of dust.

When you look out the window of a new month, you must be able to see ministry.
Retreats, Church Anniversary, the beginning of Lent, loom in the horizon of this month, and indeed there are many other ministry events each month.
And, ministry always must be evaluated how well it is done.

When you look out the window to a new week, you must be able to see people.
The people that you always find yourself with, the people that you must meet, the people that you hope to avoid, and the people need who need comfort.
If, for whatever reason, you keep on getting rid of people who are close to you, you will eventually find yourself to be the one that being rid themselves of.

When you open the window, and look out to a new day, you must see the Lord.
Each and every day that you spend walking with the Lord, are transformed from being ordinary, to special days.
A day you live without the Lord, is meaningless.

打开窗

打开人生之窗, 要看到异象
要看到对未来明确的一幅画和异象
明却的异象会邀请明确的人生和极大的热情

打开一年之窗, 要看到信心
我们的主看到信心后常常会说, 大, 小, 无
带着怀疑的心活着一年, 留下来的是一炊烟, 而不是果子。

打开一个月之窗, 要看到事工
事奉人员退休会, 教会成立纪念, 四旬斋等那个月特别的事工
事工往往以黑字事工, 本钱事工和亏本事工作为结算

打开一周之窗, 要看到人
经常在一起的人, 要见面或要回避的人, 需要安慰的人
如果在我的人生里抹去别人, 那么我也将会被别人抹去

打开一天之窗, 要看到我们的主
与主同行的每一天都会成为特别的一天
一天当中如果没有主, 那就如同死去的时间

Когда вы открываете окно,

Когда вы открываете окно жизни, вы должны увидеть видение. Яркую, Богом написанную картину будущего, вы должны увидеть видение. Ясное видение, ясная жизнь, а затем приходит большая страсть.

Когда вы открываете окно года, вы должны увидеть веру. Господь смотря на нее, говорит нам. Большая, маленькая, ее нет. Если ты будешь жить этот год в сомнениях, останется только дым.

Когда вы открываете окно месяца, вы должны увидеть служение. Служение для служителей, юбилей церкви, великий пост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ы должны увидеть особое служение. Все служения проходят оценку, через умножение, главных приоритетов и дефицита в служении.

Когда вы открываете окно недели, вы должны увидеть людей. Людей которые всегда вместе, людей которых вы радостно встречаете или может не хотели бы встречать, людей нуждающихся в утешении... И если в моей жизни я стираю людей, то они стирают нас из своих жизней тоже.

Когда вы открываете окно дня, вы должны увидеть Господа. Каждый день вы ходите с Господом и этот день особенный Без Господа один день, как мертвое время.

월간 아가페 제 395 호 목차

2 신앙시론 • 창을 열면 | 김성국 목사

5 2017 주제찬송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 장) | Fanny Crosby

6 2016년 12월, 2017년 1월 • 담임목사 설교요약

8 다민족 교회 • 천상의 예배, 다민족 예배, 지상의 교회, 다민족 교회 | 김성국 목사

12 사역위원회 • 2017년도 사역위원회 사역도

특집 • 믿음으로 사는 교회

13 하나님 중심 • 아빠! 하나님 아버지 | 이무근 장로

말씀 중심 • 중심의 Contents | 박상용 집사

14 교회 중심 • 오(5)기의 실천 | 최경선 권사

교회 중심 • 교회는 터전, 사랑, 영광이다 | 김성국 목사

16 영상방송위원회 • 장용국 집사, 매일 새벽 29년 한결 같이 | 심경선 집사

17 영상방송위원회 • 방송실의 진실 혹은 거짓 | 이종완 집사

18 미디어 속 퀸장 • 부상하는 중국 크리스천 그룹 | 단비TV

19 전도폭발위원회 • 퀸장을 배우려는 “뉴요커 목사님”들 | 전도폭발 위원장 최원일 집사

20 제직수련회 •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 소철화 권사

21 신년특별새벽기도회 • 말씀과 축복의 3일 새벽 | 조성순 집사

22 선교회 회장단 기도회 •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 채현주 권사

23 사랑의 바구니 • 바구니에 담은 하나님 사랑 | 단비TV 최지혜 아나운서

25 송년의 밤 | 송구영신예배 | 신년하례예배 • 은혜로 채워주신 어제, 더 큰 축복으로 열어주실 내일 | 정혜경 권사

신년하례예배 • 한국의 복음가수 조셉 붓소, 만남과 우정 | 청년대학부 소승우

26 교육 위원회 • 교회학교를 위한 십만번 중보기도 |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한나 권사

27 교육 위원회 • 2017년 교사 헌신예배 | 편집부

28 브리스가 선교회 • 성경필사를 시작하며... | 브리스가선교회 회장 송정향 집사

청년대학부 겨울 수련회 •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 캠프장 조한결 청년

29 청년선교부 겨울 수련회 • UpDream(엎드림) 그리고 생명력 | 이숙규 집사

차량위원회 • 2017년 차량위원회 헌신예배 | 채영주 집사

30 QPEM 대학부 겨울 수련회 • WAYS Retreat 2017 | Pastor Kiwi Jin

31 QPEM • Garden of Hope | Maggie Lee

32 가정예배 • “ 집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해요 ” | 정민영

33 기획위원회 • 2017년 연간 교회행사 계획표

34 피택장로 7인 릴레이 인터뷰 • 저랑 얘기 좀 하시죠? | 소유영 전도사
차상남 집사, 최원일 집사, 함용식 집사, 남형욱 집사, 채영주 집사, 최시몽 집사, 황태현 집사

38 담임목사 추천도서 •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예수 복음의 심장부를 찾아서)

39 새가족위원회 • 2016년 12월 등록 새가족 안내

2월은 헌신의 달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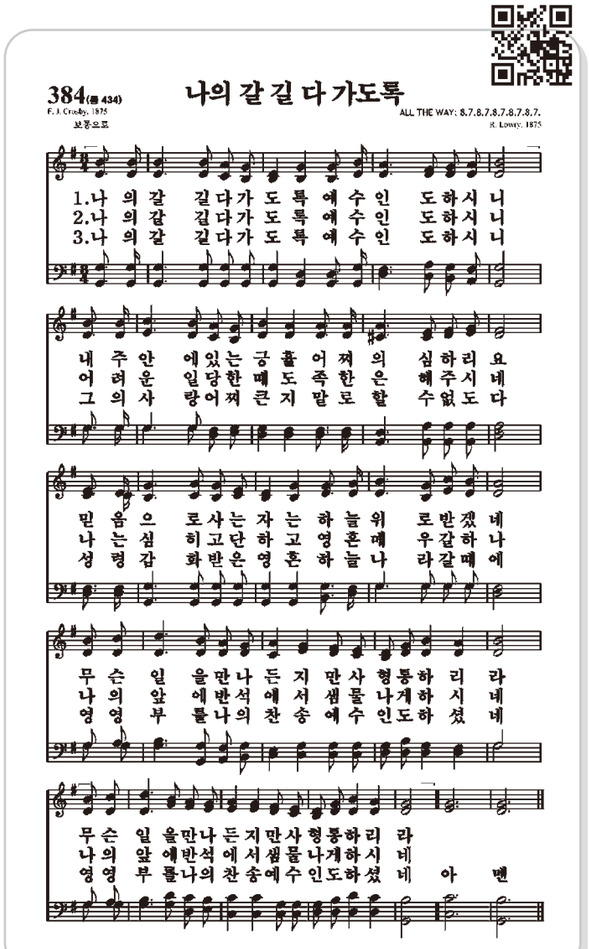
충성과 헌신의 핵심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며,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욕이 넘치다보면, 어느 순간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완전한 헌신은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전기절약 캠페인
각 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의 전등을 꺼 주세요.

- 2017 주제찬송 -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 장) ”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

Fanny Crosby

전도사
시인
작사 및 작곡가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곡 및 작사

훼니 J 크로스비(Fanny Crosby)는 여섯 살 때 눈에 이상이 생겨 치료를 받습니다. 의사의 잘못된 치료방법으로 훼니는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시력을 잃은 그녀는 탁월한 기억력을 얻게 됩니다. 그녀는 4 복음서를 비롯해 모세오경, 잠언 등 성경의 거의 모든 섹션을 암기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읽고 싶을 때 자동적으로 그 구절을 말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훼니는 자신의 눈의 허약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 - SOUL VISION- 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삶에 있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건이었으며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말씀과 함께 사는 그런 유용한 일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이 찬양이 훼니 크로스비의 전체 삶에 대한 간증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 곡을 작사하게 된 특별한 사건이 1874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집 렌트비를 낼 돈이 모자랐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적으로 맡겼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방문해 10달러짜리 지폐를 건네주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훼니는 현재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384장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퀸즈장로교회의 2017년 주제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은 힘이 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는 찬송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권면의 말씀 …

흔들림없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실한 삶을 살도록 격려 한 것처럼 힘든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 매일 힘을 얻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영영 부를 찬송은 "예수 인도 하셨네" 입니다. 아가페

2016년 12월 25일 | 누가복음 2:25

위로자 메시아

본문의 시므온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사 40:1)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위로를 기다리다 아기로 오신 위로자 메시아를 통해 어떠한 위로를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1. 함께 있으시므로 위로하신다.
임마누엘 메시아는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위로하신다.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계심으로 위로 하신다(마 1:23).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이 땅에 스며들 듯이 임마누엘 메시아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2.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위로하신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나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눅 2:30)'라고 노래한다. 메시아의 이름은 예수라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이름도 갖고 오셨다(마 1:21). 메시아 예수님은 나를 죄와 슬픔에서 건져주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신다.

3. 미래를 알게 하심으로 위로하신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나고 만민 곧 이방과 이스라엘의 앞날에 빛이 있고 영광이 있을 것을 노래한다(눅 2:31-32). 메시아는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미래를 알게 하심으로 위로하신다. 미래의 소망을 알려주심으로 위로하신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위로자 메시아를 내 삶에 영접해
외로움에서 따듯한 삶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슬픔에서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상처에서 온전히 치유되시길 축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현재의 두려움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2017년 1월 1일 | 로마서 1:16-17

믿음으로 사는 교회

마틴 루터의 1517년 종교개혁 기초가 되었던 본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며 교회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우리 교회의 표어로 정하고 2017년을 달려가자.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배로운 것'으로(벧후 1:1) 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롬 1:16)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엡 2:8).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롬 1:17).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중심으로 사는 자이다.

1. 하나님 중심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고 외치는 것이다(시 40:9).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능하심을, 지혜로우심을, 자비하심을, 구원하심을, 아버지 되심을, 변치 않으심을 보라고 외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보고 그를 믿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복음이다.

2. 말씀중심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좇지 않고 말씀을 좇는다(히 4:12). 엘리 제사장 시대의 제사장과 같이 교회에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시대는 길을 잃고 망하게 된다(삼상 3:1).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3. 교회중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민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교육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하는 소명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강력한 공동체이다.
교회는 불신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세상과 유일하게 맞서 싸울 진리의 공동체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교회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함께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우상과 불신에 맞서 싸워야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17년 1월 8일 | 로마서 8:29-30 9:19-24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투명함, 반듯함, 깨끗함, 진리, 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각자의 독특성의 차이는 있되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어진 복으로 세상을 더 개발, 발전 시켜 다스리는 것이다.
인간의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리모델링하시려는 완전한 재창조가 하나님의 뜻이다.

1.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 리모델링의 목표요 구원하시려는 목적이다(롬 8:29a).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뛰어 넘어 그 아들의 광채(의,진리, 거룩, 반듯함, 투명함, 깨끗함), 능력(만물의 통치 이상의 능력), 희생(십자가 속의 온전한 회복), 승리(죄와 죽음을 초월한 이상의 것), 아름다움(창조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능가하는)의 형상을 본받는데 까지 나아간다(히 1:2-4).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하시고 영화롭게 하심(롬 8:29-30)은 구원의 과정이다.

2. 주는 토기장이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롬9:20-23)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드신다(사 64:8). 사랑의 아버지 토기장이는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담는 그릇(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을 빚으신다.

3. 나는 진흙
하나님은 진흙 같은 나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길로 인도하신다.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신다(롬 9:24).

잘남 없는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어 목적을 가지고 놀라운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 토기장이 하나님이 빚어가시기에 편한 부드러운 진흙의 순종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아들의 형상이 갖고 있는 광채, 능력, 희생, 승리,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생애이어야 한다.

2017년 1월 15일 | 잠언 12:12-14

그 뿌리로 말미암아

뿌리가 없는 나무는 결실이 없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으며(마 13:20-21) 환경에 따라 쉽게 넘어진다. 올해 믿음의 좋은 열매를 위해서 먼저 뿌리를 점검해야 한다.

1. 믿음은 뿌리이다.
* 뿌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의인(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은 뿌리이며(잠 12:12) 항상 그에 맞는 열매가 있다. 이 믿음의 뿌리는 그의(예수님) 안에 박혀 있어야 한다(골 2:6-7). 예수님도'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하셨다(계 22:16). 다윗의 뿌리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두고 견고히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의 생애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

* 뿌리는 땅 속에서 수분을 찾아 손을 물에 대는 역할을 한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보이는 큰 나무를 만들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수고를 한다. 열두해 혈루병 앓던 그 여인만이 군중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믿음의 손을 대었고 고침 받았으며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막 5:25-29, 눅 8:46-48). 뿌리는 물에 뿌리를 내 밀어야 자기도 살고 나무도 열매도 산다.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에게까지 가 닿아야 변화와 열매가 나타난다.

2. 말은 뿌리이다.
말에는 항상 그 말의 열매와 결과가 따라 화가 되기도 복이 되기도 하며(잠 12:13-14a), 가치가 있는 말, 유익을 주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잠 10:20-21), 화를 자초하는 사람도 있다(약 3:6). 올해 내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그 뿌리인 말을 감사의 말로 바로 심으라.
감사의 언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것이다.

3. 손은 뿌리이다.
* 생업을 위한 손
과거에 우리 손으로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고, 지금 우리 손으로 심는 것을 미래에 거둘 것이다. 손에는 항상 그 열매가 있다(잠 12:14b, 시 128:2). 생업에 성실하여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기독교이다.

* 주를 섬기는 손
주를 향한 두 손의 섬김은 반드시 주님의 흔적을 남기고 열매가 있다.
주님의 흔적을 가진 자는 반드시 교회를 부흥시키며 자신에겐 상급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 기도의 손
여호와의 제단 앞에 피우는 향은 영적으로 기도이다. 기도를 가지고 휘장 안,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면 "그리하면"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다(레 16:12-13).

기사의 동영상을 보시고 싶으세요?
큐알 코드(QR Code)를 스캔(Scan)하세요. ^^

큐알 코드 리더(QR Code Reader) 설치

안드로이드 폰(Android Phone)
Play Store → 검색 QR Code Reader 를 입력창에.. → 무료 앱 설치

아이 폰(i-Phone)
App Store → 검색 QR Code Reader 를 입력창에.. → 무료 앱 설치

QR Code 앱(App)을 열어 아가페에 있는 QR Code를 스캔(Scan)한 후 표시된 웹사이트 주소를 누르면 해당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기나 컴퓨터로 보실 때에는 QR Code를 누르시면 해당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eavenly Worship, Multicultural Worship
Earthly Church, Multicultural Church

Rev. Seoung Kook Kim

Parthians and Medes and Elamites and residents of Mesopotamia, Judea and Cappadocia, Pontus and Asia, Phrygia and Pamphylia, Egypt and the parts of Libya belonging to Cyrene, and visitors from Rome, both Jews and proselytes, Cretans and Arabians-we hear them telling in our own tongues the mighty works of God. (Acts 2:9-11)

After this I looked, and behold, a great multitude that no one could number, from every nation, from all tribes and peoples and languages,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clothed in white robes, with palm branches in their hands, and crying out with a loud voice,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Revelation 7:9)

We see in the Scriptures that, our God has designed for our heavenly worship to be multi-cultural in its nature. God also expects his church here on earth to be a multicultural church.

God already had already given this mission of multicultural to Abraham, "Now the Lord said to Abraham…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Genesis 12:1-3) Jesus also, commanded his disciples to a multi-cultural mission.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Matthew 28:19a; Emphasis adde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Acts 1:8b)

Throughout the history of Israel we can see many situations and circumstances in which Israel was influenced by a multi-cultural population. When Jesus came to this earth, was born into, and lived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 land of Israel at Jesus' time, was a land with Jews, Greeks, and Roman citizens who lived together, serving as checks, balances, and influences for one another. The Church of Antioch, one of the early churches, contains within its records the names of its leaders, names reflecting and pointing towards a diverse array of leadership stemming from a diverse population

"Now there were in the church at Antioch prophets and teachers, Barnabas, Simeon who was called Niger, Lucius of Cyrene, Manaen a lifelong friend of Herod the tetrarch, and Saul"(Acts 13:1).

Scripture clearly testifies to the reality that this multi-cultural church was not restricted just to the church of Antioch and Jerusalem, but we also see it in the churches of Ephesus, Rome, Corinth, and Philippi. These churches not only had diversity and independence, but they also maintained unity under the guidance of the Jerusalem council, and the apostolic care of Paul.

This mission of a multi-cultural church our church is undergoing is not option, but mandatory. A church does not choose to become a multi-cultural church among a multitude of various available church models. No, rather this multi-cultural element of church is a part of her calling.

KAPCQ is located in New York City, a city where many different cultures and communities are living together. In a society where a diverse population is not unusual, but typical, the church must be prepared for its mission in this city, armed with both clear passion and vision.

The multicultural church that our church is aiming towards is, "Heavenly worship, done on earth." God wants both diversity and unity from his church, regardless of wherever they might be. The different language ministries in our church will work towards building more multi-cultural churche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calling.

Heavenly multi-cultural worship that is done on earth!

It is God's hope that we keep in our prayer with all our heart.

천상의 예배, 다민족 예배
지상의 교회, 다민족 교회

김성국 목사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9–10)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도행전 2:9–11)

하나님은 천상에서의 예배가 다민족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상에서의 교회가 다민족 교회로 존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다민족 예배와 다민족 교회를 향해 나아갈 때 다민족 선교는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민족 선교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1-3) 예수님도 다민족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 (마태복음 28:19a), "…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b).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민족에게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확실히 다민족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이 섞여 있어 여러 문화가 서로의 견제 속에 있었고 다양한 전통은 서로를 향한 긴장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다민족을 품고 있었고 그에 따른 갈등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그 리더들의 이름과 그들의 출신 배경 속에서 다양한 민족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3:1)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나타나는 다민족 교회는 같은 공간에 있었던 예루살렘교회나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에베소교회, 로마교회, 고린도교회, 빌립보 교회 등 여러 지역에 각기 독특성을 가지고 흩어져 있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다민족 교회로 존재하는 것을 보았는데 에베소 교회도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1,10).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양한 배경에서 나온 다민족 사람들임을 봅니다(로마서 16장). 모든 교회는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루살렘 총회의 지도와 바울의 사도적 리더십 가운데 연합적 요소를 가졌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민족 선교를 통해 다민족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교회 프로그램 중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교회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번잡한 다민족 사회, 다민족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에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다민족 지형 속에 위치하는 우리 교회는 이 지상의 어떤 교회보다 굳센 소명감을 가지고 다민족 교회를 향해 더욱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다민족 선교의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상의 다민족 예배, 지상의 다민족 교회"입니다. 다민족 교회는 같은 공간에 있든지 떨어진 공간에 있든지 전체의 연합성과 각자의 독립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언어의 교회는 천상의 다민족 예배를 사모하며, 지상에 또 다른 다민족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민족 선교를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천상의 다민족 예배, 지상의 다민족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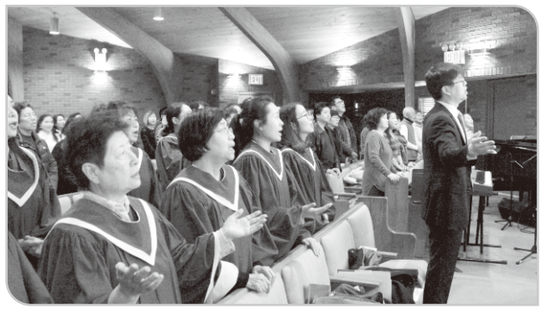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 목 놓아 외치고,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天上的崇拜，多民族崇拜
地上的教会，多民族教会

金星局 牧师

此后，我观看，见有许多的人，没有人能数过来，是从各国各族各民各方来的，
站在宝座和羔羊面前，身穿白衣，手拿棕树枝。
大声喊着说，愿救恩归与坐在宝座上我们的神，也归与羔羊。（启7：9–10）

我们帕提亚人，玛代人，以拦人，和住在米所波大米，犹太，加帕多家，本都，
亚西亚，弗吕家，旁非利亚，埃及的人，
并靠近古利奈的吕彼亚一带地方的人，从罗马来的客旅中，或是犹太人，或是进犹太教的人，
革哩底和亚拉伯人，都听见他们用我们的乡谈，讲说神的大能作为。（行2：9–11）



神在等待天上的崇拜以多民族崇拜而献上。 神也在期待地上的教会以多民族教会而存在。向着多民族崇拜和多民族教会出发时多民族宣教是必然的。神早已给了亚伯拉罕多民族宣教的异像。“耶和华对亚伯兰说，你要离开本地，本族，父家，往我所要指示你的地去。我必叫你成为大国，我必赐福给你，叫你的名为大，你也要叫别人得福。为你祝福的，我必赐福与他。那咒诅你的，我必咒诅他，地上的万族都要因你得福。”（创12：1–3）主耶稣也曾命令过多民族宣教。“所以你们要去，使万民作我的门徒，。。。”（太28：19a）“。。。并要在耶路撒冷，犹太全地，和撒玛利亚，直到地极，作我的见证。”(行1：8b)

以色列历史当中， 曾有很多次以色列百姓和其他民族相互影响的情形，在主耶稣的时代里以色列也确实是一个多民族社会。犹太人，希腊人，罗马人混合的生活在以色列地里，不同的文化相互抵制，多种传统使其他民族无法停止紧张的状态。在这种状态下初期教会也并不是只是由犹太人构成的，从初期教会中的代表教会–安提阿教会的领袖们的名字和他们的出身背景里可以看到，是由多种民族聚在一起的。在安提阿的教会中，有几位先知和教师，就是巴拿巴，和称呼尼结的西面，古利奈人路求，与分封之王希律同养的马念，并扫罗。（行13：1）除了与使徒行转和福音书当中出现的在同一个空间的多民族教会––耶路撒冷教会和安提阿教会之外，也有像以弗所教会，罗马教会，哥林多教会，腓立比教会带着自己的独特性而分散在各个地区里的教会。在上面我们看到了耶路撒冷教会，安提阿教会以多民族教会而存在，

再看一下以弗所教会。亚波罗在哥林多的时候，保罗经过了上边一带地方，就来到以弗所。在那里遇见几个门徒。这样有两年之久，叫一切住在亚西亚的，无论是游太人，是希利尼人，都听见主的道。（行19：1，10）我们也可以从保罗给罗马教会写的信中可以看到，其中出现的人物是从多种不同背景当中出来的多民族人们。（罗马书16章）虽然所有的教会各自有自己的独立性，但非常明确的是在耶路撒冷总会的指导和保罗的门徒带领当中是带着联合的因素的。

我们的教会要通过多民族宣教成为多民族教会的目标并不是为了去实现一个教会的某项程序，而是因为这是教会存在的目的。 我们教会位于世界上最繁杂的多民族社会，多民族文化共存的纽约。位于这种典型的多民族地形中的我们教会，必须要带着比地上任何一间教会，更坚定的使命感，向着多民族教会奔跑。

我们教会志向的多民族宣教的异象是神所希望的“天上的多民族崇拜，地上的多民族教会。” 多民族教会，不论在同样的空间，或是在不同的空间，会有全体的联合性和各自的独立性 。还有，各个语言的教会盼望着未来将在天上举行的多民族崇拜，为了在地上建立另外的多民族教会而被邀请到多民族宣教的。

天上的多民族崇拜，地上的多民族教会！

怀着异象，恳切的祷告，站起来放声呼求，是我们要共同成就的神的愿望。

Небесное Богослужение, Богослужение всех народов
Поместная церковь, церковь всех народов

Пастор Ким Сон Гук

9. После сего взглянул я, и вот, великое множество людей, которого никто не мог перечесть, из всех племен и колен, и народов и языков, стояло пред престолом и пред Агнцем в белых одеждах и с пальмовыми ветвями в руках своих. 10. И восклицали громким голосом, говоря: спасение Богу нашему, сидящему на престоле, и Агнцу!
(Откровение Иоанна Богослова 7:9–10)

9. Парфяне, и Мидяне, и Еламиты, и жители Месопотамии, Иудеи и Каппадокии, Понта и Асии, 10. Фригии и Памфилии, Египта и частей Ливии, прилежащих к Киринее, и пришедшие из Рима, Иудеи и прозелиты, 11. критяне и аравитяне, слышим их нашими языками говорящих о великих делах Божиих? (Деяния св. Апостолов 2:9–11)

Бог ждет когда Небесное Богослужение станет Богослужением всех народов. Бог желает чтобы церковь на земле, существовала как церковь всех народ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Богослужение и церковь, стали Богослужением и церковью всех народов, миссия стала неизбежной. Бог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дал Аврааму миссию для всех народов: "И сказал Господь Авраму:... и благословятся в тебе все племена земные."(Книга Бытие 12:1–3). Иисус также отдал приказ об миссии для всех народов: " Итак идите, научите все народы"(Евангелие от Матфея 28:19a), "... и будете Мне свидетелями в Иерусалиме и во всей Иудее и Самарии и даже до края земли."(Деяния св. Апостолов 1:8б).

Израиль за всю свою историю, оказывал и получал влияние других народов. И во времена Иисуса Христа Израиль был обществом многоэтническим. На израильской земле в то время жили иудеи, греки, римляне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народы. Разные культуры соперничали и друг с другом и разные традиции оказывали влияние друг на друга. В такой ситуация Первая церковь, изначально была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а не только еврейской. В связи с этим в церкви были и конфликты также. В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церквей того времени, Антиохийской церкви были лидеры , имена и их воспитание, показывает нам то, что они были из разных наций. " 1. В Антиохии, в тамошней церкви были некоторые пророки и учители: Варнава, и Симеон, называемый Нигер, и Луций Киринеянин, и Манаил, совоспитанник Ирода четвертовластника, и Савл." (Деяния св. Апостолов 13:1).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ая церковь, в книге Деяний и Евангелиях, показана не только на примере Иерусалимской а Антиохийской церкви, также в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ах были церкви Ефеская, Римская, Коринфская, Филипийская. Каждая из них имела свои особенности. Мы видим что Иерусалимская и Антиохийская церкви были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ми, но церковь в Ефесе также: " Во время пребывания Аполлоса в Коринфе Павел, пройдя верхние страны, прибыл в Ефес и, найдя там некоторых учеников... Это продолжалось до двух лет, так что все жители Асии слышали проповедь о Господе Иисусе, как Иудеи, так и Еллины." (Деяния св. Апостолов 19:1,10). Павел пишет письмо в Римскую церковь, и мы видим, что в этой церкви были разные люди из разных наций.(Послание к Римлянам 16 глава). Все церкви имели сво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но и имели также единство по лидерством Иерусалимского собора и апостольского лидерства Павла.

Наша церковь через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ую миссию, желает создать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ую церковь, и это не просто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ую мы избрали. Это причина существования нашей церкви. Наша церковь расположенна, в самом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м районе мира. 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м Нью Йорке. Имея такую географическую расположенность, наша церковь должна более чем другая церковь на земле, двигаться в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церкви.

Наше виденье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церкви, это желание Бога о "Небесном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м Богослужении, земной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церкви".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ая церковь будь то в одном помещении, или в разных местах, имеет единство и собственну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Так же служения на разных языках, будут иметь общность 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м служении. И стремиться к тому чтобы создать еще одну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ую церковь.

Небесное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е Богослужение, поместная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ая церковь!

Мы молимся в наших сердцах, встаем и идем провозглашать, служим и исполняем это великое желание Бога.

퀸즈장로교회
믿음으로 사는 교회
- 하나님 중심
- 말씀 중심
- 교회 중심

당회장 김성국 목사
당 회

행정국 | 예배국 | 교육국 | 선교국 | 관리국 | 기술국 | 영어회중국

행정국 — 김용생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생 / 부위원장 박정봉)
- 총무부 김용생
- 서기부 이정훈
- 비서실 홍현숙
- 의전실 최상호
- 부설기관
  - 아가페유치원 제니스이
  - 킹스아카데미 강지영
  - 한국학교 김홍덕
  - 성인대학 이양미
  - 열린유아원 이명옥
  - 도서관 최효진

재정위원회 (위원장 홍성익 / 부위원장 김성민)

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정봉 / 부위원장 홍한나)

인사위원회 (위원장 김용생 / 부위원장 황태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최원일 / 부위원장 나인애)

홍보출판위원회 (위원장 채영주 / 부위원장 정해성)
- 문서출판부 정해성
- 홍보부 이동훈

장학위원회 (위원장 채현주 / 부위원장 박정봉)

역사위원회 (위원장 김원도 / 부위원장 김지현)

예배국 — 김원도

예배위원회 (위원장 김원도 / 부위원장 최성호)
- 예배준비부
  - 1부 차상남
  - 2부 김형섭
  - 3부 최성호
  - 4부 박정봉
- 안내헌금부
  - 1부 차상남
  - 2부 김형섭
  - 3부 최성호
  - 4부 박정봉
- 통역부 박정봉
- 중국어예배부 임정
- 중보기도부 황인섭
- 러시아어권예배부 윤지현

찬양위원회 (위원장 김수산 / 부위원장 이광윤)
- 찬양대
  - 대장 김수산
  - 부대장 이광윤
  - 임마누엘 정해성
  - 호산나 신기만
  - 시온 정기영
  - 할렐루야 최성수
- 관현악대 김미언
- 경배와찬양
  - 단장 심인보
  - 가브리엘 민준성
  - 마하나임 이혜연
  - 벧엘 홍지혁
  - 바디워십 조지영
- 합창단
  - 글로리아싱어스 김명희
  - 그레이스 노선희
  - 킹스콰이어 채영주
  - 블레싱 김미견

봉사위원회 (위원장 함용식 / 부위원장 김미견)
- 취사부 차상남
- 주방관리부 주봉순
- 미화조경부 심화숙
- 행사영접부 김명희
- 친교체육부 송동률
- 법률세무상담부 최원일
- 의료부 명준모
- 구제부 오성태
- 경조부 권혁민
- 가정사역부 장봉석
- 지역사회부 최윤희

교육국 — 이무근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한나 / 부위원장 박상용)
- 영아부 윤지영
- 유아부 차동미
- 유치부 계연란
- 유년부 김근희
- 초등부 박상용
- 중등부 이병찬
- 고등부 최미희
- 청년대학부 이정혜

특별활동위원회 (위원장 이정훈 / 부위원장 이정혜)
- 유스오케스트라 최효진
- 하랑예찬 이정훈
- G2G 정기영
- 어와나 최시몽

장년성경공부위원회 (위원장 홍승룡)
- 제자훈련 홍승룡
- 장년성경공부반 최진식

기술국 — 임정

영상방송위원회 (위원장 팽종익 / 부위원장 이왕수)
- 영상방송부 계대원
- 사진촬영부 이왕수
- 동영상제작부 이동훈

인터넷전산위원회 (위원장 강성근 / 부위원장 정해성)
- 인터넷부 임승룡
- 전산부 강성근
- 웹사이트부 정해성

선교국 — 전성호

선교위원회 (위원장 전성호 / 부위원장 정길표)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 정길표 / 부위원장 차광혁)

전도폭발위원회 (위원장 최원일 / 부위원장 최상호)

새가족위원회 (위원장 남형욱 / 부위원장 김경미)

충국교포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 부위원장 장춘광)

청년선교위원회 (위원장 박정봉 / 부위원장 양용기)

다민족위원회 (위원장 황태현)

선교지원위원회 (위원장 이인철)

남선교회
- 디모데 손태은
- 요한 임동진
- 바울 김성민
- 아굴라 최성호
- 베드로 채영주
- 갈렙 정길표
- 여호수아 이광윤
- 모세 송창호
- 아론 장봉석
- 아브라함 황인섭

여선교회
- 에스더 임세현
- 뵈뵈 조지영
- 마리아 남주인
- 브리스가 송정향
- 마르다 차동미
- 다비다 민미숙
- 루디아 서규일
- 한나 최여순
- 사라 주봉순
- 안나 김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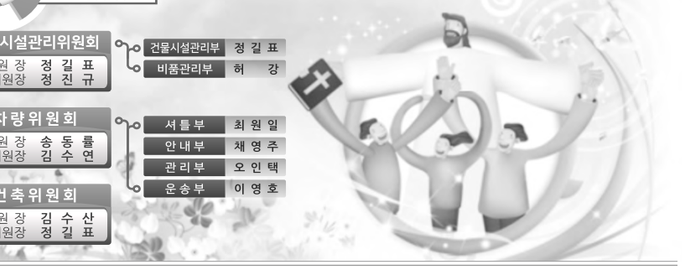
관리국 — 김용생

자산시설관리위원회 (위원장 정길표 / 부위원장 정진규)
- 건물시설관리부 정길표
- 비품관리부 허강

차량위원회 (위원장 송동률 / 부위원장 김수연)
- 셔틀부 최원일
- 안내부 채영주
- 관리부 오인택
- 운송부 이영호

건축위원회 (위원장 김수산 / 부위원장 정길표)

퀸즈장로교회
2017년도 사역위원회



- 특집 | 믿음으로 사는 교회 -

하나님 중심

“ 아빠! 하나님 아버지 ”

이무근 장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되새기면 아직도 마음에 죄송함과 감사가 함께 합니다. 6남 1녀 중 막내에서 두 번째인 나는 큰 형이 아빠 같은 나이라 젊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늘 부러웠습니다.

80년대 초에 뉴욕에 와서 신혼과 미국 생활의 자리를 잡기도 전에 아버지의 위독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빨리 들어오라는 큰 형님의 당부에 저의 발걸음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갈 여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이 잘하리라는 마음의 변명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저는 이민 초기 분주한 생활에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아버지가 죽음 후에 있을 곳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행기표, 여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게 믿음의 확신이 있었더라면 위독하다는 소식에 복음을 가지고 단숨에 달려갔을 것인데.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좋은 천국 가세요 했을텐데...

아빠, 미안해,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혼자 운전을 하게 되면 아내 모르게 참았던 눈물 때문에 차를 여러 번 세우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보니 영생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다가왔고 한여름 종아리의 색깔이 two tone으로 되고, 한겨울 스키 마스크 밑으로 고드름이 생기는 부르클린 watch man으로 6일간, 수십 시간의 일보다 하루 몇 시간의 교회 생활이 더 힘들었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나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 30여년, 한국의 가족을 위한 전도 여행과 나의 코를 꿴 일명 예루살렘 처녀 아내와의 기도의 열매는 ‘동생, 나 집사 되었어. 도련님, 저 이번에 권사 임직 받고 선교회장도 되었어요.’ 라며 형님과 형수님에게서 들려오는 승전보입니다.

하나님 중심, 아직도 다듬어져야 할 것이 많은 나에게는 계속되는 기도 제목이며 향하여 가고 있는 목표입니다. 제일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 내 자신인 것 같습니다.

20대의 한 청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큰 꿈을 꾸고 있다가 군대를 가게 되어 이 나라를 변화 시키리라는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어 이제는 내 가정만은 변화시키리라. 그러나 나이가 들어 그 꿈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어서는 나를 변화시킬 걸 후회 했다고 합니다.

자신과의 몸부림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몸부림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품고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 아버지, 죄송하고 감사해요”

- 아들 무근 올림 -

말씀 중심

“ 중심의 Contents ”

박상용 집사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 무엇을 뽑겠는가?

중요한 것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개념을 뽑을것인가? 바로 시각의 차이다. 같은 것을 말해도 시각이 다르면 다른것이 될수가 있다. 또 따져보면 엄연히 다른것이다. 그만큼 시각이 중요하다. 중심을 이야기 할때도 그렇다. 중심이 무엇인가? 중심을 보는 시각은 무엇인가? 그럼 direct 질문을 던지겠다. “당신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설명해 보라~!

예를 한번 들어 보겠다. 미국에 대표적인 운동은 NFL이 있다. 이 NFL에서 중요한 선수는 QB - Quarterback 이라고 한다. 이 QB 가 던지는 공은 좀 이상하게 생겼다. Spiral이란 공의 회전을 줘야 공이 목적지(receiver) 까지 정확하게 멀리 잘 날아간다. 공에 중심이 있다는 것이다. 멀리 정확히 날아 가려면 중심이 중요하다. 총알도 마찬가지다. 총알이 멀리 정확히 날아가려면 그냥 딱 총같이 “땅” 하고 쏘면 멀리 정확히 못간다. 하지만 총알에 회전을 줌으로서 멀리 정확히 날아간다.

또 하나, 지구가 그렇다. 지구가 남극과 북극을 지나는 선을 축으로 자전을 해야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할수있다. 지구의 자전이 없으면 태양의 공전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 자전이 없으면 궤도 이탈한다. 곧 중심이 있다는 말이다. Football이건 총알이건 지구이건 모든것이 중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중심이 깨지면 Football의, 총알의, 지구의 역활이 깨진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원리다. 중심있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란 중심을 갖고 말씀이란 중심을 갖고 자전을 하며 돌고 있으면 크게 돌때(공전할때) 어느곳을 가던 중심을 잡을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다.

성경에서도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데 회막을 중심으로 또 그 안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친다. 동서남북으로. 이것 자체가 자전이다. 그리고 이 형태가 움직인다. 공전한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모습이 있을때 우리 삶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장소에 관계 없이) …내주예수 모신곳이… (자전적인 힘이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어딜 가던지 먼저 자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팽팽하게 돌수있는 신앙의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큰 흐름으로 도는 것이다. 이걸 공전이라 한다. 부디 자전의 팽팽한 힘을 갖고 공전의 흐름으로 들어갈수있는 온 교회가 되길 바라고 기도한다.

- 특집 | 믿음으로 사는 교회 -

교회 중심

“ 오(5)기의 실천 ”

최경선 권사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뢸때”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요즘 제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첫 소절이며 제목은 나의 기도입니다.

2016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마무리 하게 하시고 2017년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상황으로 시간이 많아진 저에게 쉼을 주시고 여유로운 맘을 주신 하나님,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주일 설교 방송을 다시 들으며 기도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주보 한켠에 있는 목양칼럼을 읽게 되었고 나를 설레게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기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지기 싫어 하는 마음, 신앙적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둥.

그 의미는 먼저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기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인 성도들에게 **기댐**으로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다시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오기**를 실천해 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 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곳이며 성령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중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기대해 보며 …

2017년 화이팅 해 봅니다.

“ 교회는 터전, 사랑, 영광이다 ”

1월 21일(토) 새벽설교

시편 87편 1-7절

김성국 목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데 교회는 여기저기 문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고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교회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교회는 터전이다

교회는 모든 이의 터전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교회가 터전입니다. 출발점입니다. 본문 4-6절에는 “거기서 났다”라는 말씀이 세 번 반복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교회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자는 모든 근원이 교회에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7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믿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배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 16:18-19)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에는 천국열쇠가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알게 합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천국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천국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하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당신은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이 엄중한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20:21-23)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출발시켜 주고 자라게 할 뿐 아니라 천국복음을 증거하고 그 천국복음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말할 수 있는 근원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가 터전이요 근원이고 중심입니다.

2. 교회는 사랑이다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 주심으로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일 4:9-10)

유럽의 빵에 막대기 같이 긴 것 있는 것 아시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남자가 어떤 굶주린 청년에게 빵을 주려고 다가오는데 그 청년은 그것이 자기를 때리려는 막대기인 줄 알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는데 자꾸 도망가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거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 중요하고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도 잘 됩니다. 자기 집에는 최고급을 쓰면서 교회는 허름한 것을 계속 써도 괜찮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가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 2:15-16)

교회 안에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말 한마디, 이런저런 불평불만, 교회 방향에 대한 오해, 이기적인 생각 등이 있어 교회를 허뭅니다. 건전한 교회 생활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힘들고 교회는 어렵게 됩니다. 내 감정, 내 판단 중심이 앞서지 않고 먼저 교회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교회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3. 교회는 영광이다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사 60:1-3)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진 상황 가운데 교회가 주저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550장 1,2절)

그렇습니다.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교회는 터전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영광입니다.

이 찬란하고 소중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교회는 터전입니다.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터전이요 근원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말, 태도가 없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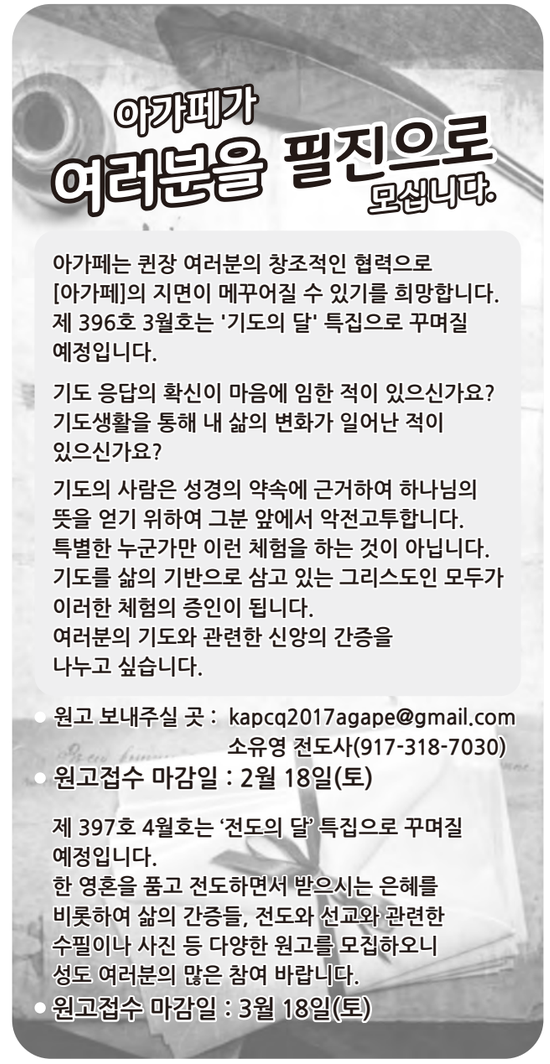
교회는 영광입니다.

교회는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찬란하고 소중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 삶에, 가정에, 모든 일에 질서도 세워지고 복도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매일 새벽 29년 한결 같이...

2016년 12월 **장용국 집사님이 봉사상을 받으셨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예배에 방송부에서 29년간 방송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취재를 부탁 드렸을 때도 특별한 것 없으시다며 극구 사양하시고 봉사상도 본인은 특별히 하신 것이 없으시다고, 사양하시다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안보이는 곳에서 새벽예배를 위해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서 봉사하시게된 계기를 여쭤보니 매일 새벽예배에 나오시고 한국에서부터 방송관련 일을 하셔서 봉사하시게 됐다고 특별한 것 없으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랜 세월 비가오나 눈이오나 매일 봉사하신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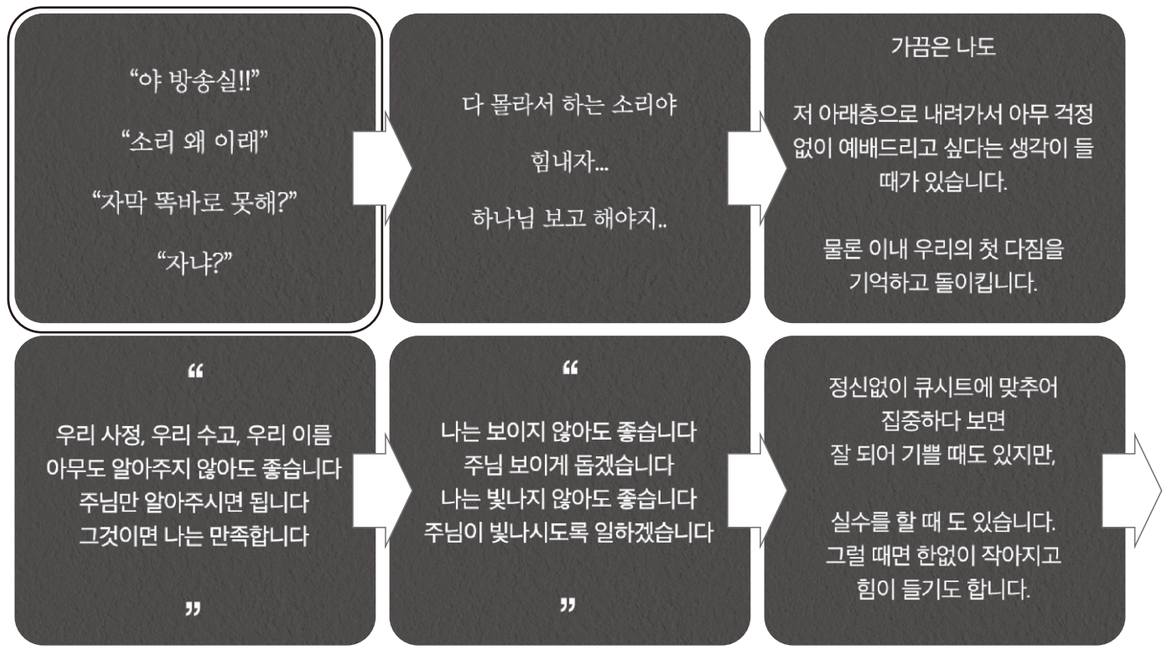
아내이신 장광숙 권사님과 슬하에 1남 2녀 가족들의 내조도 있었을것입니다. 때론 몸도 아프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새벽예배 덕분에 하루가 좋으시다고 웃으시며 이야기하시는 집사님이 비범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들이 예배에서 무심코 지나 갈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위해 시간을 쓰시고,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 가는 것이 아닐까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당연한 것이 당연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력과 땀과 희생으로 만들어 진다는 사실, 내가 편하게 누리는 그 무엇인가는 누군가의 노력과 땀의 결과라는 것을 다시 새기며 감사드립니다.

[심경선]

교회에서 **방송**사역 **한다**는 건



방송실의 진실 혹은 거짓

저희 방송실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종완 집사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실에서 영상, 자막으로 섬기고 있는 이종완 집사입니다.

방송실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첫번째, 방송실은 퀀즈장로 교회 IT 관련쪽 사역은 다 한다!

정답은 거짓입니다. 방송실은 주로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배시에 음향, 자막, 녹화, 영상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구요. 사진과 관련된 업무 교회 홈페이지 관리, 교회내 인터넷망 관리 등은 방송실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 방송실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두번째 답은 진실입니다. 본당 2층 테라스 위쪽에 위치한 방송실은 비록 협소한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필요한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컴퓨터로 손쉽게 예배운영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사람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막은 물론 음향, 카메라, 예배실황 녹화 등등으로 필요한 자리들이 많이 있으니 방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은 그런 분들에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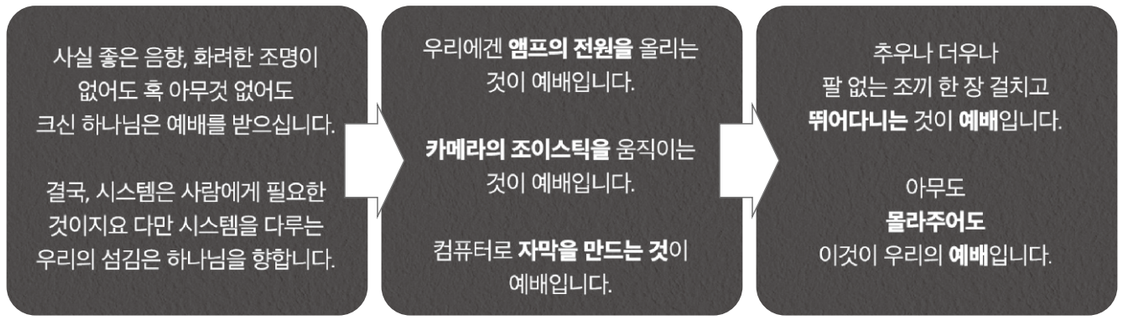
세번째, 방송실은 예배만 섬긴다!

거짓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예배들은 다 방송실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결혼식등의 교회내 행사를 비롯한 양순관, 체육관, 친교실등에서 음향이 필요한 행사에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녹음이나 간혹 안내되는 영상자료들도 대부분 방송실에서 자체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향설비나 통역시스템 구축등의 일들도 방송실을 통해 전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번째, 방송실에는 미리짜여진 각본(?)대로 돌아간다!

이 답은 진실입니다. 보통의 예배순서들은 바뀔일이 특별히 없기때문에 주보에 나와 있는대로 진행되는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 같은 경우가 예외가 될수 있겠네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 예배는 1부에는 한글, 2부 한중, 3부 한영, 4부 한러로 진행되다 보니 예배를 각각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각 언어들 번역에 관련된건 방송실내에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워서 이중언어가 가능하신 분들이 그때그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달되어지는 내용만 저희는 그대로 내보내다 보니 실수 확인도 불가능하고 설교시 자막도 설교에 맞춰서 제대로 나가는지 확인이 어렵구요. 언어 능력자들도 환영합니다 오셔서 함께해주세요! 아무튼 이런 예배들이 있을때는 각본대로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 이상을 미리미리 준비해놓습니다. 혹시나 생길수 있는 돌발상황등에 대비하려면 모든 상황을 미리 생각해봐야 하거든요. 또한 순서들도 많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예배시간 내내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수가 없다 보니 미리 짜여진 각본이라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방송실 사역에 대한 이해가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전문가의 손길이 아닌 봉사하시는 손길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조금은 관심이 생기셨다면 오셔서 기술적인 부분들도 배우시며 봉사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음향, 카메라, 자막, 광고아나운서 등등으로 섬기실 수 있으니 함께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실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KAPCQ IN MEDIA

12/29/16 | 단비TV

부상하는 중국 크리스천 그룹

대학 캠퍼스 12% 무신론 / 퀸장 중국예배 … 2년 등록교인 800명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크리스천 그룹으로 부상하고 있다.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국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중국어 예배가 활기를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무신론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젊은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기독교학생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30만명을 넘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12%가 무신론자에서 크리스천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 유학생들은 낯선 땅에서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접하고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퀸즈장로교회 중국어 예배를 담당하는 유지 첸 전도사는 "중국 유학생들은 언어장벽과 외로움으로 힘겹게 대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중국인 학생들이 모여있는 기독교 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첸 전도사는 "중국에서는 당국의 규제로 대학에서 복음을 접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중국인 기독교 그룹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교회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중국인 크리스천 유학생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중국인 기독교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대학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천 중국인 그룹의 역할이 크다는 설명이다.

첸 전도사도 퀸즈칼리지 CCF(중국학생 크리스천 펠로십)에서 활동하며 크리스천이 됐다.

플러싱 인근 중국어 예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플러싱 중국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퀸즈장로교회 중국어 예배의 경우 매달 수십명씩 늘어나면서 지난 2년 동안 등록교인만 800여명에 달한다. 중국인 초신자들은 비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은 250여명에 달한다.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성경공부에는 1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생활에 힘들어하는 중국인들이 교회의 평온한 모습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따뜻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첸 전도사는 "힘들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중국인들이 교회에 있는 크리스천 가족의 환대를 받고 관심을 갖게 된다.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고 찬송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양한 기독교의 따뜻한 모습을 접하고 교회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퀸장을 배우려는 "뉴요커 목사님"들

퀸장을 배우려는 "뉴요커 목사님"들

- 뉴욕 메트로 전도폭발훈련의 중심에 선 퀸장 -

최원일 집사 | 전도폭발위원장

지난 1월 24일 화요일 아침 10시. 세 명의 "외국인"이 우리 교회 현관으로 들어 오고 있었다. 맨하탄에 있는 크리스챤 선교 연합교회(The 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Church)의 호르헤 아이바네즈 (Rev. Jorge Ibanez) 담임목사, 케네디 공항 인근에 있는 세인트 알반 장로교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St Albans) 에드워드 데이빗 (Rev. Dr. Edward Davis) 담임목사, 그리고 버지니아 리치보로 목사 (Rev. Virginia Richbourgh)가 그들이다. 뉴욕의 아침 러시아워 교통흐름은 대개 동쪽에서 서쪽으로 즉 맨하탄쪽으로 흐르는데 , 이들 "외국교회" 뉴요커 목사님들은 트래픽 (Traffic)을 거슬러 퀸즈북부에 있는 우리 퀸즈장로교회로 "출근"한 것이다.

이들이 아침부터 우리 교회를 찾은 이유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전도폭발훈련 확대를 통한 뉴욕복음화 운동 교회 모임'이 그것이다. 인종과 문화및 교파를 초월해서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뉴욕을 복음화 시키자는데 뜻을 모은 교회들의 모임이다. 모임은 최소 2개월에 한 번씩2시간 남짓 이루어진다. 모임에서는 각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전도 사역 또는 전도폭발 훈련 사역의 내용을 나눈다. 성과는 물론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과 모색이 이루어진다. 또한 전도훈련이 필요한 뉴욕시 인근에 산재한 다른 교회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 교회들의 실정에 맞는 전도폭발 훈련을 지원함으로써 뉴욕의 각 지역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전략을 만들고 실행을 돕는 일을 한다.

이 모임은 전도폭발 국제본부가 국제전도폭발 사역 모범 교회에 수여하는 최고영예 '디 제임스 케네디상' (D. James Kennedy EE Ministry Excellence Award) 수상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선정된 직후인 2016년 3월 경 만들어졌다. 당연하게도 우리 교회는이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모임이 만들어 진 후 1년이 채 못된 지금, 맨하탄 소재 2개 교회, 브롱스 소재 1개 교회, 스테튼 아일랜드 소재 1개 교회, 그리고 우리교회 포함 퀸즈의 4개 교회 등, 모두 8개 교회의 목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껏 모두 일곱 차례 모임이 열렸는데 그 가운데 세번을 우리 교회가 호스팅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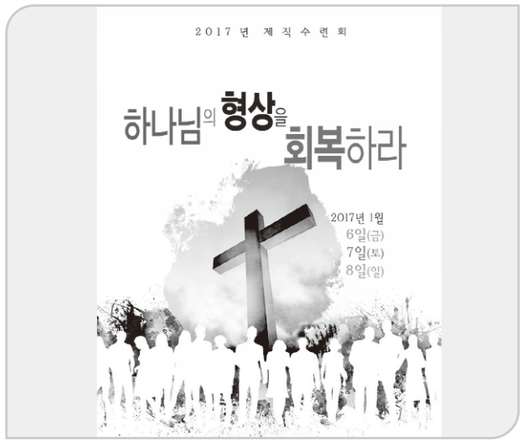
적지 않은 수의 훈련된 교사와 전도 현장 복음제시 훈련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이 정기 모임을 호스팅 하는 것 말고도 여러 형태로 다른 교회들의 전도폭발 훈련을돕고 있다. 지난해 10월 자메이카와 세인트 알반등 퀸즈 남부지역에 있는 미국인 교회 일곱 곳이 연합하여 소속 교회들의 교역자및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나흘간 주최한 전도폭발훈련에 우리 교회는 이틀에 걸쳐 일곱 명의 훈련자들을 보내 그 지역 공원과 거리는 물론 소년원까지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미국인 훈련생들을 훈련시킨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뿐만 아니라, 수년 전 부터 해당 교회 담임목사님의 추천을 받은 퀸즈 지역 다른 교회들의 리더들을 우리교회 전도폭발 훈련에 등록시켜 훈련시키고 있다.

이 정기 모임에 참여하는 미국 교회 목사들은 하나같이 우리 교회 전도폭발 훈련에 세 번 놀란다. 먼저 1988년 첫 훈련을 시작한 이래 30여년 가까이 훈련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에 놀란다. 전도폭발 훈련 종류도 다양해져 단축코스등이 생겨났지만 우리 교회는 가장 길고 힘들다는 13주 코스인 클래식 전도폭발 훈련으로 훈련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놀란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중국어까지 3개의 언어로 훈련한다는 사실에는 입을 다물지 못한다. 이 세 가지 놀라운 일가운데 단 한가지라도 비슷한 기록을 가진 교회가 뉴욕시 지역에 존재 하지 않는 다는 사실에는 그들도 우리도 다 같이 놀란다. 전도폭발을 통해 뉴욕을 복음화 시키기 위한 이 모임이 필요한 이유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도폭발 훈련의 성과가 한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향한 교회들의 노력을 측정하는 절대적인 통계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전도분위기와 전도열정을 반영하는 여러 지표중 하나임에는 틀림 없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뉴욕, 그 어느곳보다 복음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 도시에 퀸즈장로교회만큼의 전도 훈련역사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교회가 드물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기라기보다는 뉴욕에 사는 그리스도인 모두의 영적인 숙제라 할 것이다. 전도 훈련과 그 결실로서의 전도가 도시 크기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 안타까운 현실을 뛰어 넘고 이 위대한 도시에 위대한 복음을 씨 뿌리기 위한 영적 각성에 민족과 언어를 뛰어 넘는 교회들의 연대가 이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일의 중심에 퀸즈장로교회가 서 있는 셈이다. 그 일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교회는 3월 14일 열리는 올해의 두번째 모임도 기꺼히 호스트 하기로 했다. 뉴욕 복음화를 위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할 사명을 향한 발걸음은 계속 되고 있다.

“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

여러분! 이번 제직수련회에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리라 믿어요!



새해 첫주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우리의 각오를 다짐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멋지고 강하게 무장할수있는 귀한 시간이었죠. 수련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시간시간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이 올해 가지고 살아가야 할 목표가 뚜렷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각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내신 정말 귀한 존재임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우리는 반듯하고 투명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우리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흐뭇한 모습인지 아니면 슬퍼하시고 탄식하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러한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며, 이러한 우리를 회복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하고, 보여지는 모습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번 수련회 하는 동안 목사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제직원들의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겸손한 모습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우리교회의 제직여러분은 구석구석 각각 맡은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멋지신 분들이십니다. 마지막날에는 온 제직이 모두 손을 잡고 본당을 원을 그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해주는 귀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제직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본질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제직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소철화]

제직수련회 폐회예배 마지막 순서는 모든 제직들이 예배당 안에 큰 원을 이루며 손을 맞잡고 "항상 진실케"와 "야곱의 축복"을 합창했다.

말씀과 축복의 3일 새벽

- 보내고, 섬기고, 기도하자 -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나라에선 신년 연두교서가 있고, 회사에선 시무식이 있듯이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퀸즈 장로교회에선 1월 1일 주일에 믿음으로 사는 교회란 표어로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17절 말씀을 바탕으로 올 한해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권면하여 주셨으며 이어서 1월 2일 부터 삼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련하여 말씀과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월 2일(첫째날) - 요한계시록 5장 8절 [향이 가득한 금 대접]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질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1월 3일(둘째날) - 누가복음 18장 8절,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은 보이고 믿음은 본다]

우리 모두와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미래를 보시기를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1월 4일(셋째날) - 요한복음 14장 12절-18절 [믿는 자의 권세]

세상의 실력자와 그의 가족들이 권세가 있다면 왕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겐 그 권세 뿐 아니라 세상을 움직일 힘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큰일, 그 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큰일 그리고 세번째 큰일은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지상 사명의 큰일 입니다.

2017년에도 그 사명에 충실하여 다민족을 섬기고 담대함으로 나가실뿐 아니라 보내고,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성순]**

새벽기도회를 마친 후 신년축복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김성국 담임목사님

할렐루야 찬양대

2017년 단합 기도회 모임

지난 1월 15일(주일) 저녁 5시 30분 양순관 친교실에서
할렐루야 찬양대 친목 단합모임이 있었습니다.
김성국 담임목사님과 김명자 사모님, 김수산 찬양위원회 위원장,
이광윤 부위원장, 윤원상 전도사, 각 찬양대 부장,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갈비찜을 메인 메뉴로 한 푸짐한 저녁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교제와 친목을 통해 새해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주일 4부 청년예배를 섬기고 있으며 지휘자 최경희 집사,
반주 김정윤 집사 임세현 집사, 부장 최성수 집사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

모든 일이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2017년을 ‘믿음으로 사는’ 교회로 선포하며 나갈 때 각 선교회를 앞장서서 섬기게 될 남녀 선교회 회장단 기도회가 1월 9일(월) 저녁 7시에 정성으로 준비한 만찬과 더불어 만남의 교제와 감사를 지하친교실에서 나누었다.

연이어 이어진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 전서 16장 15~18절에서의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주는 권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해 주셨다.

1) 스데바나라는 인물에 대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스데바나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얻은 첫 열매이다. 바울은 오직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었다고 한다. 그 당시 고린도교회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다. 이런 저런 자기 주장을 높이므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때에 이런 상황속에서도 주의 일을 말없이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가 바로 스데바나였다. 사도바울은 그 가정을 참 귀하게 여겼다.이들은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 고린도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훌륭한 동역자 “스데바나”를 18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라고 한다. 열심을 다해 헌신한 회원들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알아주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모두가 되자.

2)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 예수께로 데리고 온 사건을 통하여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함께 동역하는 모두가 되고, 다윗과 요나단 같은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사랑 공동체가 되자.

3) 주님의 소원을 목숨 걸고 이루어 드리자. 또한 교회와 담임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사명 다하는 선교회가 되자.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을 사랑하고 동역자를 한 사람 한사람 귀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이 기뻐 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모든 일이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부탁하시면서 선교회별 그룹 기도회로 모여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도회를 마무리했다.

[채현주]

KAPCQ IN MEDIA

‘연합의 기적’ 성탄 찬양축제

퀸즈장로교회, 아콜라연합감리교회, 프라미스교회, 필그림교회, 후러싱제일교회 등 5개 연합하고 단비TV가 주관

퀸즈장로교회, 아콜라연합감리교회, 프라미스교회, 필그림교회, 후러싱제일교회 등 5개 연합하고 단비TV가 주관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성탄 연합 찬양축제’가 지난 12월 18일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에 오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데 이를 찬양하기 위해 펼쳐진 이날 성탄 연합 찬양축제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껏 노래하는 축제의 장으로, 하나되는 ‘연합의 기적’이 나타나는 행사가 됐습니다.

요즘 교계 연합행사는 각 교회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교인들이 너무나 모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에 출연진과 청중 등 20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연합과 화합의 본보기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필그림교회 노은정씨의 트럼펫 솔로 ‘부흥’으로 시작된 본격적인 찬양축제는 퀸즈장로교회가 첫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190명으로 구성된 퀸즈장로교회 찬양대(지휘 윤원상, 오르간 윤현주, 피아노 최미희)는 관현악대(36명)와 어린이찬양대(50명)와 함께 ‘12일간의 크리스마스 찬양’ ‘징글벨’을 불러 상큼하면서도 아름다운 화음이 돋보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가장 출연진이 많은 이들은 크리스마스에 맞춰 산타복장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날 가장 눈길 끈 찬양대는 퀸즈장로교회 다민족찬양대(지휘 윤원상)였습니다. 퀸즈장로교회의 중국어·러시아어·영어에배 교인 50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관현악대와의 협연으로 ‘목자들의 축제’를 각 나라의 언어로 불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날 김성국 목사님은“예수님께서 첫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셨다”면서 “오늘 찬양축제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며, 기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킹덤임팩트무브먼트(King Impact Movement)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단비TV

KAPCQ IN MEDIA

바구니에 담은 하나님 사랑

복음의 선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땅끝까지 퍼져나가길...

단비 TV 최지혜 아나운서

지난 2001년 9월 11일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로 인해 힘없이 무너지면서 뉴요커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9.11 테러로 인해 3000여명의 무고한 생명이 힘없이 사라졌고, 수많은 소방관과 경찰관들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불속에 뛰어들었다가 희생되기도 했다. 당시 도탄에 빠진 뉴욕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선 희망이 필요했다. '용서와 회복'의 상징인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했던 것이다.

퀸즈장로교회는 당시 슬픔에 빠진 소방관과 경찰관을 위로하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과일과 캔디를 바구니에 담아 인근 경찰서와 소방소를 찾아갔다. 엄청난 선물이 담긴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과 소방관의 마음은 금세 녹아내렸다. 당시 바구니에 담긴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의 바구니에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교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온정의 손길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사랑의 바구니'는 올해로 벌써 16년째를 맞았다.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바구니'는 플러싱 지역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퀸즈장로교회는 어김없이 '사랑의 바구니'를 준비했다. 이른 아침부터 친교실에 모인 교역자와 교인들은 바구니에 과일과 캔디를 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쪽에서는 과일을 담고, 다른 쪽에서는 비닐로 포장을 하며 사랑의 바구니를 하나씩 만들어갔다. 목사와 전도사 뿐 아니라 이 교회에 다니는 청년과 타민족 교인들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바구니에 사랑을 담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전달할 양말과 목도리를 포장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바구니에 담는 이들의 표정은 환한 웃음으로 가득찼다. 준비된 150개의 사랑의 바구니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김성국 목사님은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기도를 올렸다.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왕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완성된 사랑의 바구니는 가장 먼저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 선상에 있는 109 경찰서로 향했다. 이날 따라 세찬 겨울바람이 불면서 손이 꽁꽁 얼기도 했지만 이웃사랑을 향한 이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쳤다. 경찰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온 한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환영의 인사를 나눴다. 바구니를 들고온 젊은이들은 경찰관과 함께 기도하며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총이 넘치길 기원했다.

바구니를 실은 밴은 두번째 행선지인 '마세도니아 처치' 흑인교회로 향했다. 흑인교회의 여성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한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마세도니아 교회 예배당으로 안내했다. 흑인교회 관계자들은 설립 2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와 플러싱 교회의 역할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교회는 그동안 노숙자를 위한 셸터를 운영하며 나눔에 앞장서왔다. 마세도니아 교회 관계자들은 퀸장 젊은이들과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사랑이 넘치는 커뮤니티가 되기를 기도했다.

세번째로 향한 곳은 플러싱 한복판에 자리잡은 '엔진 273' 소방소. 겨울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면서 몸을 움추리게 했지만, 소방관들은 반갑게 우리를 맞았다. 퀸장의 방문 소식을 들은 소방관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우리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퀸즈장로교회 교인들은 소방관들을 위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용기와 힘을 주고 서로를 배려하는 커뮤니티가 되기를 소망했다. 소방관들은 기도를 마치고 소방차 기능을 설명하고 소방소 건물을 안내하기도 했다. 올해로 2년째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임스 케네디 소방관은 한인 교회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퀸즈장로교회는 올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봉사단체, 선교회 등 40여 곳에 사랑의 바구니 150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바구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의 선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플러싱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멀리 퍼져나가길 기도한다.

"은혜로 채워주신 어제, 더 큰 축복으로 열어주실 내일"

2016년 송년의 밤과 기도회

' 정겨운 밤이 아름다운 현악사중주와 함께 깊어가고 '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허락해 주신 2016년의 희로애락으로 물든 봄, 여름, 가을이 어느덧 꿈같이 사라지고, 으스스 귀시린 찬바람 따라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며 두터운 코트 깃을 세운 겨울 나그네가 성큼 찾아와서 아쉬움을 안고 다시 못 올 이 해의 끝으로 함께 손잡고 달려 왔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밤이 깊어가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가도 정겨운 아버지집에서 한해를 감사로 보내고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추위도 잊은 채 원근에서 하나 둘 모여 들었으며, 밤 10시가 되어 담임목사님 의 은혜로운 기도로 퀀장 송년의 밤이 지하 친교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곳곳에 있는 둥근 테이블 위에 맛있는 스낵과 야채, 과일이 진열되어 있어 여러 교우들이 함께 즐기며 담소하고 또한 친교실 중앙에서는 아름다운 현악 4중주 연주가 계속되어 우리의 마음과 귀를 더욱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한어 회중외에 중국어 회중이 함께 하여 서로 사랑과 축복을 보내고,한 해 동안의 피곤도 풀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나누고 위로하며 따스하고 푸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시가 되어 모두들 본당에 올라가 송구 영신 기도회를 가졌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고후5:17a)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b)는 말씀 후에 회개와 감사 기도, 새날을 주시려고 부르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2016 - 2017년도 송구 영신 예배

은혜로운 그레이스 합창단의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시37:3-7)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 무엇을 맡길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시37:5)는 말씀 처럼 길(미래)을 맡기고,가정과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2. 어떻게 맡길까?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시 37:4b)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안식하며 참고 기다림으로 맡겨야 합니다.

3. 왜 맡길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시37:5b)라는 말씀처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또한 사명을 받기 위해 맡겨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 우리의 모든 것(가정과 소유물과 일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서 축복 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는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성구 분배 시간이 되어 많은 성도들이 귀한 말씀을 빨리 받고 싶어 서둘러서 앞으로 나와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고는 흐뭇한 얼굴로 본당을 나왔습니다.

새로 떠오른 2017년을 주님께 맡기며 주신 복된 말씀을 가슴에 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미지의 새해로 내디디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맛있는 스낵과 함께 오가는 정겨운 대화

올해에는 어떤 말씀을 받을까 설레이며

신년 하례 예배

기다리던 소망의 2017년이 환하게 밝아 왔습니다.

신년 하례 예배는 주일인 관계로 1, 2, 3, 4부 예배 때 신년도 제직 임명과 찬양대 임명이 있었고, 목사님을 통하여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인 '믿음으로 사는 교회'(롬1:16-17)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 이므로 전능하시고 창조와 사랑과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며, 세상의 모든것은 다 지나가 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위에 바로 서야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머무시고 교통하는 곳으로 교육과 봉사와 선교하는 소명과 진리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와 사랑을 보여주고 불신의 세상과 싸우는 곳이므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복된 사명을 다 해야 하며 이런 굳건한 믿음 안에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라는 복된 소망의 멧세지였습니다.

말씀 후에 새해의 소원을 담은 신년 축복 씨앗 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렸으며, 이어서 새해 첫날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 저녁예배는 제직원 시무 헌신예배로 드렸으며, 특별 순서로 Joseph Butso형제가 또렷한 한국어로 '주를 위한 이 곳에'를 열창하여 모든 교우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수고한 것을 보고'(사53:11)를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제직이 되고자 다짐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로 선물해 주신 2017년에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실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말씀 중심,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혜경]**

담임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기둥같은 시무장로님들이 함께...

한국의 복음가수 조셉 붓소 만남과 우정

청년대학부 소승우

지난 여름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장학생을 위한 스피치 컨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컨테스트를 하는날 아침에 한국에서 찬양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한 흑인 미국청년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이 나를 울게 만들었고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청년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과 연락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머리로는 스피치를 준비하였지만 마음으로는 잘 준비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으로 그 청년과 연결을 했습니다. 내 간증과 그때 상황을 온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생각지도 않게 그 청년 죠셉이 답장을 해주며 내가 그의 기도응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재미있는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곤 했습니다.

지금은 죠셉이 얘기했듯이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깊은 우정어린 친구가 되었습니다.

*** 미국에서 5년 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갔다는 조셉 붓소(23 • Joseph Butso)는 현재 한국에서'찬양' 버스킹(busking)과 CCM밴드 '연탄365' 멤버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복음가수이다. 실력파 CCM 가수로 흑인 특유의 감성과 창법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의 케이블TV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3'에서 진짜 노래 실력자로서 우승자가 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교회학교를 위한 십만번 중보기도 ”에 동참해 주세요!

“교회학교를 위한 십만번 중보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300명만 매일 기도해도 일년 안에 십만번 기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한나 권사**

얼마 전, 영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의 믿음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탈세례식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기독교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배우고 믿었던 신앙적 교리를 부정하고 기독교적 신념을 거부한다는 너무나 참담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의 원칙을 사람의 편리로 바꾸고, 말씀의 기준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졌던 미국이 이젠 신앙을 지키려하면 오히려 핍박받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붕괴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면적 타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마저도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던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혼돈과 타락은 신앙을 다음세대에게 전해주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쉐마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과 흡사합니다. 게다가 미래의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이야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 할 이유는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보통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는 어떤 위대한 인물의 출생으로 시작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은 위대한 인물의 출생이 아닌, 한 여인의 통곡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한나의 서원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놓고 기도하며 울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녀는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그 여인의 기도가 시대의 어두움을 깨뜨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두움의 시대를 돌파할 지도자로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물질문명이 넘쳐나고 스마트폰과 같은 문명의 이기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시간과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추구하는 대신 철저한 개인주의와 쾌락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교회학교를 위한 십만번 중보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300명만 매일 기도해도 일년 안에 십만번 기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지키는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학교를 든든히 세우는 기도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1. 교회학교를 위해

- ◆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 ◆ 부서마다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 ◆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 ◆ 믿음의 세대계승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 ◆ 예배마다 말씀이 살아있고 영적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 ◆ 부서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부)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2.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

- ◆ 교사의 사명을 최우선에 두는 교사되게 하옵소서
- ◆ 영성이 충만한 교사되게 하옵소서
- ◆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열정이 충만한 교사되게 하옵소서
- ◆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사되게 하옵소서
- ◆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교사되게 하옵소서
- ◆ 모든 환경을 주관하셔서 사명에만 집중하는 교사되게 하옵소서

2017년 교사 헌신 예배

사랑이 없으면 절대 감당 할 수 없는 직분... 바로 교사의 자리

교육위원회와 특별활동위원회에 속한 교사들

퀸즈장로교회 교회 학교 헌신 예배가 지난주일 1월 22일 오후 4시에 있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각자의 소명을 발견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 시키는 하나님의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애쓰는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이었다.

먼저 교회학교 교사 임명과 특별활동 교사 임명이 있은 후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있었다.

교회학교 교장 김성국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21절로 **"만나라 그리고 던져라"**라는 말씀으로 엘리야 와 엘리사 즉, 스승과 제자 관계를 통하여

1) 교사는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깊은 사귐이 학생들과 있어야 하며
2) 말씀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고 도전을 주는 교사가 되어야 하며
3) 변화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자녀들로 자라도록 애쓰는 교사가 되라고 하셨다.

그리고,이 일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힘든 일임을 알기에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말씀 후에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헌신 찬양을 전 교사가 마음 모아 올려 드렸다.

이날 전 교인에게 배부된 '**교회학교를 위한 십만번 중보기도**'표를 통해 기도의관심과 협력을 부탁했다.

가장 훌륭한 교사는 예수님 이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써 쓰임받는 귀한 교사가 되기를,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 될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서 그 나라 세워가는 모든 교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한다.

교육국은 국장 이무근 장로님, 교육위원장 홍한나 권사님, 특별활동위원장 이정훈 집사님이 섬기고 계시며, 교육부에는 145명의 교사, 특별활동부에는 24명의 교사가 헌신하고 있다. 마가페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애 2:19)

3.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

- ◆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 ◆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 ◆ 평생 달려갈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 ◆ 다음세대를 이끌 믿음의 일군들로, 이 시대 거룩한 영향력의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 ◆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 ◆ 각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 ◆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문을 세우게 하소서

4. 말씀의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 ◆ 교회학교 교장 김성국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 ◆ 부서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 ◆ 지도자들이 교사들과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기도의 본,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 ◆ 교회학교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12:15)

청년대학부에서는 지난 1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뉴저지에 소재한 라마나욧 수양관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의 주제로 겨울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는 청년대학부 담당교역자인 오인수 목사님이었고, 2박 3일동안 총 7번의 예배를 통해 올해 교회의 표어인 '믿음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맞춰서 종교개혁에 가장 핵심이었던 로마서를 통독하고 강해하는 수련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여러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꿈을 꾸는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감하며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장 조한결 청년

이번 대학부 수련회는 많은 면에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수련회였습니다. 청년부가 청년 선교부와 대학부로 나눠지고 대학부로서 가는 수련회는 2번째였고 첫번째 여름수련회와는 다르게 청년선교부 형 누나들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으며 독립적으로 준비한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선발대부터 찬양팀까지 온전히 대학부 멤버로 이뤄진 적은 처음이었고 당연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준비과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수련회장을올라가서 장비들을 셋업하는 과정까지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장비를 까먹고 오고 작동하지 않는 장비들도 있었습니다. 노련함이 없었던 저희들도 우왕좌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총체적 난국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비들의 부재속에서도 셋업은 개회예배 전까지 되었고,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이 청년들 한명 한명을 인도하심이 보였습니다. 저 또한 찬양팀이자, 모임 인도자이자, 캠프장으로 섬기며 느낀것이 저의 힘으로 하려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자리를 잘 감당하며 섬기며 나아갈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수련회장을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했다라는 마음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2박 3일동안 7번의 예배와 애찬식, 세족식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수련회였습니다.

성경필사를 시작하며... 브리스가 선교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 잠언 9:10

2년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알게된 이야기입니다. 2천년 전, 사해사본이 발견된 에세네파의 쿰란공동체에서는 무릎을 꿇고 선 채 성경사본을 썼으며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손을 씻고 다시 쓰는 정결의식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공동체 중심”의 그들이 보여준 삶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구분된 삶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경은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밝아온 2017년, 브리스가 선교회가 성경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한구절 한구절 쓰여질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4개의 다민족 언어가 함께 쓰여질 것이고, 약 23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경필사는 조금이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정독으로 읽어야만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성경을 직접 손으로 쓰는 모습은 -성경책 대신 스마트폰의 성경 앱을 이용해 예배 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산교육이 되며 믿음의 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쁜 삶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는 브리스가 선교회 자매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절 예배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뜻을 한 데 모으며,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퀸즈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브리스가선교회 회장 송정향 집사]

“ UpDream(엎드림) 그리고 생명력 ”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 통찰력, 생명력을 가진 청년 리더...

지난 1월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업스테이트 뉴욕 소재 로젠데일 수양관에서는 청년선교부 2017 겨울 수련회가 ‘UpDream (엎드림) 그리고 생명력'이라는 주제로 조희창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세미나와 집회를 통해, “UPDREAM, 회복, 그리고 생명력”, “이성교제, 결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Great Commission”,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 UPDREAM”, “미디어를 분별하고 정복하라”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 조희창 목사님은 세미나와 집회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파워포인트와 영상 자료들을 통해 설명하면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들을 이용해서 청년들과 함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들으며 그 문제들을 어떻게 직면해 나아가야 하는지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희창 강사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상처로부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올바른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을 가진 영향력 있는 청년선교부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수련회를 오랜 기간 준비하고 기획했던 캠프장 정진웅 청년은, 함께 만들어가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수련회 날짜와 장소 등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 청년들에게 묻고 결정함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참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련회를 위한 스태프, 찬양팀들도 미리 구성되어 기도로 준비하고 연습하며 함께 수련회에 참석하는 청년들로 하여금 더 기대를 하게 하는 수련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청년선교부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 통찰력, 생명력을 가지고 영적인 리더들로 바로 세워져 나가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숙규]

차량위원회 헌신예배

지난 1월 15일(주일) 오후 예배를 차량 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렸다.

2017년 사역위원회 헌신예배의 맨 처음을 차량 위원회가 드린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성국 목사님의 설교 제목 ‘길을 여는 자’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차량 위원회는 성도들을 교회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여는 자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예배를 비롯 특별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섬기고 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섬김과 겸손을 닮는 삶이 아에 성도들의 발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차량 위원회는 ‘운송부’, ‘셔틀부’, ‘안내부’, ‘관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54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헌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이 한해에도 헌신과 변함없는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채영주]

WAYS Retreat 2017

QPEM Orison College Group

By Kiwi Jin

Orison Ministry (English Ministry College Group) just got back from their annual winter retreat! WAYS Retreat 2017 invites all college students from all different life stories and journeys. As we all come with different stories and 'ways', we believe that Christ is the only 'way'. It was the beginning of having our ways transform with the foundation of Christ's way. This is the overarching vision for our yearly WAYS Retreat and we hope to continue to have college students bring their individual stories and have them be transformed with Christ's story in His death and resurrection for us.

With the overarching goal of WAYS Retreat in mind, this year, we focused on two main ideas at retreat through the worship and teaching of God's Word. The first thing we focused on was to contextualize the gospel of Jesus Christ in this up and coming generation. We addressed ideas of our generation in their selfishness and entitlement. The message was geared towards recognizing our selfishness and entitlement as a generation and taking time to really repent for that. Selfishness causes us to reject the gospel if it doesn't fit our personal agendas. Entitlement diminished the way in which we view the grace of God as a gift. There was a call to repent for these things. Second, we really addressed the problem of social media in today's generation and how students in this generation try to have relationship with God as they do with people on social media. Every response needs to be quick and things need to be short. We took some time to really focus on these underlying cultural issues that prevent us from truly allowing Christ to transform us. We then prayed for repentance and for one another to pursue Christ with all our hearts.

The second half of retreat discussed the idea of suffering. Pastor Kiwi Jin preached on the necessity of suffering. Scripture tells us that we will all go through suffering. However, our millennial generation does everything to avoid suffering. Pastor Kiwi preached that rather than trying to dodge and avoid suffering, we as Christians must approach suffering from a mindset that says, "what is God trying to teach me in the midst of this suffering." With this mindset of suffering, we are able to suffer with Christ and know Him deeper in our suffering. And as we suffer with Him, we will also share with His glory. God's Word tells us of these truths in 1 Peter: 12 Beloved, do not be surprised at the fiery trial when it comes upon you to test you, as though something strange were happening to you. 13 But rejoice insofar as you share Christ's sufferings, that you may also rejoice and be glad when his glory is revealed. Lastly, we brought deeper meaning to our suffering. Pastor Kiwi's final message talked about how we must use these experiences of suffering as testimonies of Jesus Christ's redemption in our lives.

Though much of the teaching and preaching throughout the retreat was focused on deeply challenging the lives of students in their context, the remainder of the retreat was focused very much on fellowship and building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We were able to build relationships through times of games, small groups discussions, and even just hanging out with one another over some coffee and tea. We also had activity outings. We went bowling one day and had snowboarding and skiing another day. Through all the times of games and fellowship along with these planned activities, a lot of students were able to build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and with other staff.

Despite a lot of bumps along the road with weather, we are so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have our first ever WAYS Retreat. There were a lot of relationships formed and many beautiful memories made. We're so thankful for our KAPCQ community constantly praying for us throughout retreat and as we made our way back in the severe weather. Please continue to pray for our ministry and our students. Please pray for continued maturity in their walks with Jesus. Please pray for a deeper passion and knowledge for His Word. Lastly, please pray that these students would live out big dreams and build His kingdom.

And I am sure of this,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bring it to completion at the day of Jesus Christ. (Philippians 1:6)

" Garden of Hope "

QPEM Mercy Ministry Outreach

By Maggie Lee

QPEM was blessed to serve with the Garden of Hope ("GOH") organization for our Mercy Outreach ministry. GOH is an non-profit Christian organization that serves women who are abused, abandoned and have nowhere to turn. These women live in hiding and darkness. A little over a year ago, my family hosted a sister and her two boys who were kicked out of the home by her husband. Therefore, I first hand witnessed how difficult it was for the family that was going through such situation. It is something that stayed with my heart from then on.

Earlier this year, one of our discipleship groups served to provide a year's worth of needed supplies for about 80 women and 20 children who live in shelters due to domestic violent, sexual abuse and human trafficking etc.

God's mercy reached to them started with that little step from QPEM

The GOH Christmas celebration was hosted at the First Baptist Church of Flushing, a couple blocks away from KAPCQ. We were primarily tasked to lead a Gospel worship service to the 80+ children and also to support the mothers at its Christmas party. QPEMers who came were divided up into a few groups, a group to evangelize to women, a group to help with set up, and a group to lead the children program. QPEM partnered with the Chinese Ministry to evangelize to the women as the majority of the women there only spoke Chinese. Praise the Lord! At the First Baptist Church, there were at least 40 brothers and sisters came to serve from our church.

During the event, I saw QPEM members serve in many ways; taking pictures for the mothers and kids, carrying and servicing the food, distributing the gifts to the women and children. There was a peaceful coordination among volunteers who didn't even know each other. If you were there, you would sense that it is God's hands at work.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re were 15 women who came to receive Jesus as their personal savior. For a lot of women, they probably experienced being hopeless but through the message, they found Jesus as their hope. What a beautiful gift for Christmas! Our evangelism team was there to clarify the gospel and pray for women who committed their lives to Jesus after the service. I personally spoke to a mother and a daughter. They both received Jesus as their personal savior. How awesome it is for that mom and her daughter to have the same re-birthday! Praise God for his miraculous work! When speaking with them, even without much drilling down to the detail of their personal background, I could feel the mixed feeling of pain (what they were experiencing) and joy (of the salvation) at the same time.

Pastor Peter and Pastor Kiwi, along with many members led the Children's worship. We led a time of worship, sharing the Gospel message and we even had two of our KAPCQ students- Daniel and Elijah, share their testimonies! The teachers then had a moment to pray for all the children.

Pastor Peter later described the event during a Sunday sermon as being on a mini-missionary trip. We shared Jesus Christ for the first time to children who had never gone to church before. Even though we did not know what to expect, everything somehow got done because our Lord was with us. Praise God! As for me, God filled me with unspeakable joy both during and after the party. I am so thankful to take part in this event. Also very thankful for sisters and brothers who donated time, finances and gifts, for various leaderships from

the church. We provided a glimpse of hope for the women and children during this Christmas season. May God's love find those who heard the message, but did not come to Christ that day! And may He continue to overflow them with hope, provide strength, love and peace for those who came to receive Him! It is Jesus who enabled all of us to serve in unity despite the fact that we had come from different churches. It is Jesus who is the light of the world, and those who follows Him will not walk in darkness anymore,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All glory to God the Father! Perhaps next year, God will call our church to host the celebration for those suffering women and children.

“ 집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해요 ”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 현장인 가정...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정 처음으로 접하는 교육의 현장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보고 배우는 체험적 교육을 통해 삶에 필요한 기초적인 행동양식을 배우고 인격을 형성해 나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현장 또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공교육기관과 교회 학교를 통한 교육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많이 약화되었으나 개인의 인격형성이라는 차원에서 가정과 부모의 영향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적 신앙 인격의 형성에 있어서도 가정은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교육현장인 것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가정에서의 기독교적인 자녀양육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 1-9절)

유대인교육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교육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에게 올바른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사회규례를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가르치며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의 생활양식을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는 가정의 교육현장에서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과 행동양식은 고스란히 신앙 교육자료가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 보여주는 두 가정을 소개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가정예배와 주일 교육부에서 드려진 예배를 가정에서의 놀이 소재로 삼아 형식에 매이지 않은 자유함 속에서 찬양과 기도, 예배를 생활가운데 체험케 하는 두 가정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승조, 이찬미 집사 가정 (이하준, 이하언)

- 예배드리고 나면 질문하는 하준이

"천사가 뭐야?" "천사는 뭐 하는거야?" "어디에 있어?" "천사가 발은 있어?" "골리앗은 나쁜 사람이야?" "골리앗은 왜 돌 맞았어?" "다윗은 왜 키가 작아?"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뭐야?"

주일 예배 후 집에 와서 하준이가 저에게 물어보는 것을 쭉 들어보면 어느정도 설교내용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럼 하준이가 물어볼 때 제가 아는 성경을 쉽게 풀어서 또는 어린이 성경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주면 좋아해요.

- TV 없는 저녁시간

저녁식사 후 샤워 하고 잠들기 전이 신나게 놀이를 하는 시간이예요. 보통 찬양을 틀어달라고 하고 율동을 해요. 요즘엔 '난 예수님이 정말 정말 정말 좋아' 를 좋아해요. 찬양과 율동이 끝나면 종종 장난감 마이크를 가지고 오며 "오늘은 내가 전도사님이야" 라고 해요. 요즘은 주일학교 설교시간에 들었던 것을 자기 나름대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해요. 한 손에는 마이크, 한 손에는 반드시 리모콘을 가지고 스크린을 가정한 벽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늘과 땅은 누가 만드셨죠?" 라고 질문을 하면 저와 남편은 “ 하나님이요 “ 대답하며 같이 예배놀이를 해요.

- 가정예배

매일 함께 예배드리려고 노력하지만 못 그런 날도 많아요. 예배 중에 기도 시간이 되면 하준이에게 "기도할래?" 물어보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저희가 기도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지요. 저희 모습을 그대로 배우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잠들기 전에 해주는 재미있는 성경이야기

잠자리에 들기 전 함께 누우면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요. 그럼 오늘 있었던 일들도 이야기 하고요. 낮에나, 얼마전에 얘기해 준 성경이야기를 동화처럼 이야기 해줘요. 하준이가 정말 좋아해서 하나 끝나면 하나 더, 또 하나 더.. 하는게 제게 조금 힘든^^* 부분이예요. 가끔 소재가 떨어지면 제가 더 성경공부를 해야함을 느끼지요.

송현규, 송소영 집사 가정 (송예진, 송준서, 송준우)

준서는 어릴때부터 찬양을 참 좋아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즐겨 불렀어요. 영아부때에도 앞에 나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찬양 하는것을 참 좋아했구요. 유아부에 올라가서 처음은 부모님과 떨어져 예배드리는 것을 조금 힘들어했지만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준서가 하루에 자주 찬양을 혼자서 부르는 것을 봐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땐 '그다음은 뭐지?' 하며 가사를 물어보고요. 가정예배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를 제외하고 매일 드리는데 찬양 선곡은 준서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은 '또!' '또!' 하면서 몇번이고 반복해서 부르구요. 새로운 찬양을 들으면 가사와 멜로디를 빨리 익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피아노 연습을 할 때는 곡을 알려주고 반주를 해달라고 하며 찬양을 부르기도 하구요. 요즈음은 찬송가 몇곡도 혼자서 부르기도 하더라구요.

찬양을 좋아하는 준서를 위해서 앞으로는 어린이 찬양만이 아니라 찬송가도 더 많이 불러야 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준서는 찬양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인것 같아요.

찬양을 좋아하는 준서에게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준서의 삶이 찬양의 고백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민영]**

2017 연간 행사 계획표

Month	Topic	Week	Day		Weekly Schedule
1	전진의 달	1Wk	1-1	주	신년하례예배, 제직원 시무 헌신예배
			1/2,3,4	월화수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1-4	수	지도원 성경공부
			1/6,7,8	금토주	제직원 수련회
		2Wk	1-9	월	남녀선교회 회장단 기도회
			1-13	금	구역예배
		3Wk	1-15	주	차량위원회 헌신예배
		4Wk	1-22	주	교사 헌신예배
			1-25	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5Wk	1-29	주	
2	헌신의 달		2-1	수	신학교 개강 부흥회
					지도원 성경공부
		1Wk	2-5	주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선교회 월례회
		2Wk	2-12	주	새교우 졸업식
			2-16	목	제자훈련 플러스 시작
		3Wk	2-19	주	교회설립 43주년 기념주일 찬양제 (킹즈,블레싱)
			2-21	화	전도폭발 재훈련생 훈련
			2-22	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4Wk	2-26	주	교회설립 43주년 기념 주일
3	기도의 달	1Wk	3-1	수	지도원 성경공부
			3-5	주	선교회 월례회
					학습, 유아, 입교, 세례문답 시작
			3-6	월	30회 사순절 새벽기도회 시작
			3-9	목	열린유아원 개강
			3-10	금	구역예배
		2Wk	3-12	주	Daylight Savings Starts
			3-14	화	성인대학 개강
					54기 전도폭발 개강
		3Wk	3-19	주	
			3/24,25,26	금,토,주	저녁예배 - 교사대학
		4Wk	3-29	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4	전도의 달	1Wk	4-2	주	선교회 월례회
			4-5	수	지도원 성경공부
			4-7	금	구역예배
			4-8	토	세례문답식
		2Wk	4-9	주	종려주일/성례예배
			4-14	금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밤
		3Wk	4-16	주	부활주일/새벽 초불예배/부활절 찬양예배(4시)
			4/17,18	월,화	여선교회 수련회 가능한 날짜 (미정)
		4Wk	4-23	주	
			4-26	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5Wk	4-30	주	
5	가정의 달		5-3	수	지도원 성경공부
		1Wk	5-7	주	어린이 주일/어린이 헌신예배(저녁예배)
					선교회 월례회
			5-12	금	구역예배
		2Wk	5-14	주	어버이주일/그레이스 합창단 발표회 (저녁예배)
			5-15	월	효도관광 (예상)
		3Wk	5-21	주	제자훈련 플러스 수료예배(예상)
			5-24	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4Wk	5-28	주	성경 암송대회
			5-29	월	전교인 한마음 축제
6	성령의 달	1Wk	6-3	토	선교 바자회
		2Wk	6-4	주	선교회 월례회
			6-7	수	전도폭발 수료식(예상)/ 지도원 성경공부
			6-9	금	구역예배
		3Wk	6-11	주	
		4Wk	6-18	주	교회학교 졸업식
		5Wk	6-25	주	
			6-28	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7	선교의 달	1Wk	7-2	주	
			7/3-5	월-수	전교인 여름 수련회
			7-7	금	구역예배
			7-8	토	아이노스 정기연주회
		2Wk	7-9	주	글로리아 싱어즈 정기연주회 및 단기선교 파송
		3Wk	7-16	주	
		4Wk	7-23	주	
			7-26	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5Wk	7-30	주	
8	사랑의 달	1Wk	8-2	수	지도원 성경공부
			8-5	토	
			8-6	주	선교회 월례회
		2Wk	8-13	주	함께하는 찬양축제 - 중창 경연대회
		3Wk	8-20	주	
		4Wk	8-27	주	스피치 컨테스트
			8-29	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8-30	목	제자훈련 시작 (미정)
9	교육의 달	1Wk	9-3	주	
			9-4	월	Labor Day
			9-6	수	지도원 성경공부
			9-7	목	열린유아원 개강
		2Wk	9-10	주	단기선교 보고예배
			9-12	화	퀸즈성인대학 개강(미정)/55기 전도폭발 개강(미정)
			9-15	금	구역예배
		3Wk	9-17	주	
		4Wk	9-24	주	
			9-27	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10	말씀의 달	1Wk	10-1	주	선교회 월례회/학습,유아,입교,세례교육시작
			10-4	수	지도원 성경공부
			10-7	토	건축바자
		2Wk	10-8	주	
			10-13	금	구역예배
		3Wk	10-15	주	장년성경공부
			10/16-21	월-토	가을 새벽 부흥회
		4Wk	22	주	장년성경공부
			25	수	
		5Wk	29	주	장년성경공부
11	감사의 달	1Wk	11-1	수	지도원 성경공부
			11-5	주	선교회 월례회/Daylight Saving Ends
			11-10	금	구역예배
		2Wk	11-12	주	성례예배
			11-16	수	신학생 찬양의 밤(미정)
			11-18	토	학습, 입교, 유아, 세례 문답식
		3Wk	11-19	주	추수감사주일
			11-23	목	추수감사절 감사의 밤(블레싱 콰이어)
		4Wk	11-26	주	장년성경공부
			11-29	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킹스 콰이어)
12	결실의 달	1Wk	12-3	주	선교회 월례회/연말당회
			12-6	수	지도원 성경공부/ 제직회
		2Wk	12-10	주	공동의회
			12-15	금	구역예배
		3Wk	12-17	주	선교회 정기 총회/ 성탄절 찬양의 밤
		4Wk	12-24	주	성탄주일/ 성탄축하예배
			12-25	월	성탄절(교육부)
		5Wk	12-31	주	송구영신예배

퀸즈장로교회

믿음으로 사는 교회

- 하나님 중심
- 말씀 중심
- 교회 중심

소유영 전도사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7인의 피택장로 릴레이 인터뷰

할렐루야! “저랑 얘기 좀 하시죠”의 소유영 전도사입니다.
2016년 11월 첫째주와 둘째주에 걸쳐, 한인 회중에서 다섯 명, QPEM에서 두 명의 장로를 선출하였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차상남 집사, 최원일 집사, 함용식 집사, 남형욱 집사, 채영주 집사, 최시몽 집사, 황태현 집사 입니다.
피택된 후 3개월이 지나갑니다. 피택장로들은 담임목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새해를 맞았습니다.
2017년을 맞아 이분들과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릴레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1. 2017년에 맡은 사역부서
2. 장로피택 소감
3. 예수 믿고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일
4. 교회를 위해 하시고 싶은 일
5. 아가페를 위한 조언
6.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

차상남 집사

– 참 순교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체험한 퀸장의 선교현장 –

차상남 집사 차동미 권사
빛나(QPEM 청년부) 한얼(QPEM 대학부)

1. 예배부에서 1부 예배 부장과 취사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2.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말로도 그때의 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는 큰 기쁨 이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폭포수 같은 은혜의 비를 뿌려 주셨을까요? 그런 마음 한편에 하나님의 부름심에 한 목소리로 택해 주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제 가슴에 담고 평생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에 변함없이 굳건히 서 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QPEM 형제 자매들과 2003년 카작스탄 단기선교 리더로 섬겼을 때 입니다. 박동서 선교사님의 막내 아들인 중학생 다니엘이 아버지가 선교지에 계신데도 자기는 선교에 비젼이 없으니 이곳에 혼자 남아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여름방학을 보내겠다면서 출발하는 날까지 떼를 썼으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함께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보다 더 어린 모슬렘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머니에게 예수를 전하겠다고 매일 5전을 아껴서 선물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펑펑 눈물을 흘리며 이제껏 자기만이 힘든 삶을(아버지가 선교사,목회자임) 살았다고 오해했었음을 고백했고 이제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3일째 되는 저녁11시경, 마지막으로 마당에 간이 샤워실에서 샤워 중 갑자가 쏟아진 찬물에 허리가 마비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하반신이 움직이지가 않아서 놀라고 아프고 경황없이 누운채로 장우진 목사님을 불러서 함께 기도 할때 두가지를 체험했습니다. 첫째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 또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앞에서 어떻게 모두를 용서했을까?’ 였는데, 그날 저녁 제게는 놀라운 기적이 극한 상황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번째는 선교지에서 리더로써 절대로 제가 쓰러지면 안된다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낫게 해주시면 뉴욕에 가서 아프겠다’고 간절히 기도한 대로, 뉴욕에 와서 정확히 2개월간 회사를 못 나가고 쉬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지만 아내 차동미 권사에게는 혼이 났죠. ‘이왕이면 깨끗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다음에는 꼭 그러마 약속했습니다.

4. 취사부의 올해 안의 계획은 저희 교회 특성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시는 담임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님들에게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이 3가지가 있는 식단으로 바꾸는 것, 친교실을 교제의 공간으로 이용하시는 어른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병이어 부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와 다민족 예배 그리고 새 성전 건축에 쓰일 물질이기에 축복하실 것을 믿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5.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아가페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땀의 결실이었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 책과 사진으로 함께 했지만 이제는 영상으로도 제작이 되어 우리의 손 안에 있는 휴대폰이나 친교실 영상에서도 복음과 살아있는 간증을 보고 듣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원일 집사

– 복음 들고 전도의 최일선에서, 성경대로 살아가자 –

최원일 집사 최정혜 권사
정원(중등부) 주원(초등부) 지원(유치부)

1. 2017년에 전도폭발 위원장, 차량부 셔틀부장을 맡았고, 감사위원장, 기획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2. 장로로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전문 직업인으로서 과제가 보이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대한 반성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도와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장로가 되자고 결심했습니다.

3.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5년차 때 장모님께서 위암 판정을 받아 급히 귀국하여 기도하던 중 새로운 의사의 검진을 통하여 위암이 아니고 큰 종양이어서 위 절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2, 3주간의 체험과 기적적인 소식,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이룬다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4. 평신도와 장로는 일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변호사, 회계사로서 교회에 산재해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불확실한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현실을 보지말고 성경대로 살아가자.’ 라고 아가페를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2, 3년간 꾸준히 뭔가 변화 하려고 몸부림치는 아가페를 보아 왔고, 그 편집 내용의 변화하는 모습에 치하하고 싶습니다. 2017년에 더 많은 변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6. 전도폭발 이후로 전도의 지평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태국에서 온 유학생 조교인 IT전문가에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불교신자였던 그는 처음 듣는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후 1년, 그는 자기 아내에게 예수를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계속 기도해 달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를 다시 깨워줍니다. 전도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신다는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입니다. 일의 결과보다 단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로서, 100년 전에 받은 복음을 이제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용식 집사

– 봉사 위원회의 각 부서를 통해 많은 봉사의 기회를 줄터... –

함용식 집사 함미희 전도사
동혁(CA거주) 유림(QPEM 청년부)

1. 2017년에는 봉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봉사부는 할 일이 많고 범위가 넓습니다. 예배도 service 라고 하듯이 차량부도 식당도 모두 봉사입니다. 봉사부 안의 각부서를 통해서 더 많은 성도가 봉사에 참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봉사부 안에 친교 체육부 주최로 분기 별로 낚시, 등산, 골프, 족구 대회, 등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2.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축하해 주시면서 “그냥 하시던대로 해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가 되면 교회를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하겠지만, ‘저 사람 진국이다. 한결같다. 저 사람은 저 자리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좀 더 기도하며,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81년에 세례받고 82년5월에 도미하여 퀸장에 등록하고 한교회를 섬겼고 결혼도하고 장로까지 피택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한 20년전 함전도사가 투병할 때 장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고 그 때 부름받아 지금의 함미희 전도사가 된 것이 또한 감사합니다.

4. 우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충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라나는 2세들이 고등부를 마치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게해 주고 싶습니다. 또한, 젊은 선교회와 기성 세대 교인들 간의 갭을 줄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각 선교회는 선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하고, 각 세대마다 상황에 맞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각 세대의 특색을 잘 알 필요도 있고, 자라온 문화적 갭도 이해 해야 하고 서로가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선교도 잘하고 친목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충실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전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민족 선교에 관한 가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언어로 예배는 드리지만 한 교회 안에서 서로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더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각 언어권 별로 자체적으로 많은 봉사자들이 나와야 하겠고 교육부나 차량부에도 각 언어권 봉사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섬김 받는 입장에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참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책읽는 것을 싫어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전도지로도 활용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끄는 아가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각 부서에 대한 소개를 통해 성도들이 각 부서에 많이 조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형욱 집사

- 첫 교회 첫 직장, 회복의 길로 인도한 퀸즈장로교회 -

남형욱 집사 남주인 집사
용준(고등부) 건우(초등부) 규민(유치부)

1. 새가족위원회 위원장, 글로리아 중창단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2. 담담합니다. 또 한번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퀸장은 미국 이민와서 첫번째 교회이고 뉴저지 살면서 퀸장에 등록한 첫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한 지 18년이 지났고, 교회 중심으로 1년을 52일처럼 산 것에 감사합니다. 장로 피택된 것은 젊은 안수집사로서 교회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했지,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을 정도로 담담합니다. 마음가짐은 단지 '피택자로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열심히 하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사로서 맡은 직분만 일하다가 장로 훈련 받으며 우리 교회가 가야할 방향을 이야기 하면서, 교회 전체와 부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3. 제 인생에 퀸즈장로교회에 온 것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3대째 모태신앙이었지만, 대학 때부터 미국에 오기까지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 나오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무시했었고, 이민을 계기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당시퀸즈장로교회에 출석하던 사촌형의 권유를 받아서, 버스타고 전철타고 걸어서 2시간이나 걸리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되었고, 첫 직장도 퀸장 한국학교가 첫 직장이었습니다. 지하방에 살면서 창문 있는 집에 사는 것이 꿈이었었는데 신앙생활하며 하나씩 채워주시고,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4. 새가족을 처음 만나면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돕는 가운데 제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는 마음,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도 알아봐주게 되고, 가구도 구해 주게 되곤 합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합니다. 우리교회 홈페이지도 제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교회도 알리고 싶고, 복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인터넷으로 교회에 봉사도 하고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5. '아가페'는 새가족에게 드리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교인들에게는 교회의 행사내용을 전달하지만, 새가족이나 외부인들에게는 교회의 전도지로도 사용되는 좋은 책자입니다. 아가페의 역할이 큽니다.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교회가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고, 행사도 많습니다. 새가족, 교포들, 타민족에게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퀸즈장로교회는 민족과 언어를 넘어서 기쁘게 받아들이며 같이 생활하는 다민족교회의 비전이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채영주 집사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퀸장을 위해 -

채영주 집사 채현주 권사

1. 홍보출판위원회 위원장과 차량위원회 안내부장, 킹스콰이어 단장, 베드로선교회 회장, 연합 선교회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2. 장로로서 자격없고 염려가 많은 사람인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걸 압니다. 피택된 이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로는 세상적인 것들로 평가 받지 않고 성품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고민하며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품에 있어서 책망받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고귀한 일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마음이 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숙한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 사랑하는 채현주 권사 만난 것이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처럼, 돕는 배필로 아내를 허락하셔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에 크리스챤의 결혼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곳이 없어서 여러 책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더 연약한 존재라서 마땅히 보호해 주고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 금년에 차량 안내부장를 맡았는데, 차량부를 통해 새롭게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차량 안내부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분들을 맞이하는 교회의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차량 안내를 은혜 가운데 잘하고 싶습니다. 차량 안내부 부원들은 예배를 돕는 우리의 교우들이고 봉사자들 입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선교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대학시절 교회 연합회 소속의 대학연합 문서선교 모임을 통해 아내를 만났고, 홍보출판위원장으로서 문서를 통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싶습니다. 묵묵히 수고하는 편집위원들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발전해가고 잘 세워져가는 부서 되길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젊은 인재들로 새롭게 구성된 홍보부가 창조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며 기도하겠습니다.

킹스콰이어와 베드로 선교회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이고, 맡은 부서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5. 성경도 문서입니다. 전자 출판도 문서에 속하며, 문서는 매우 파워풀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도구중 하나입니다. 그 중 하나가 아가페입니다. 편집 발행하는 관계자들이 자랑스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역시 문명이 달라질 때 마다 표현되는 문자나 재질이 달라졌던 것처럼 아가페 역시 다양한 시도가 시행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서 사역 되기를 바랍니다.

6. 주일학교가 무너져 가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퀸장 교육부는 튼실하다고 믿으면서도 한 켠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교육을 주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회교육을 따라가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정립되어야 하지만, 교육도 세상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가야 하는데, 매 주일 아이들 받아서 진행하기도 빠듯한 현실입니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고 믿음의 군사로, 예배자로 세워나가야하는 것이 진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부에 좀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시몽 집사

- I have also had this sense of pride for KAPCQ -

최시몽 집사 최애리 집사
용준(유년부) 미나(유치부) 제나(유치부)

1. I am currently overseeing the Newcomer's ministry at QPEM, a small group leader for one of the Queens Married Men's group, Orison (college group) at QPEM and Director of AWANA.

2. Growing up in KAPCQ, I don't think I ever imagined becoming an elder. Primarily because I don't speak Korean and not being able to speak the language has always separated me from the 'main' church. Physically, I can say I attend KAPCQ, but QPEM has always been my 'church'. I have no real deep relations with any of the leaders in the KM and I've been here for 40 years now. But I've also had this sense of pride for KAPCQ. I know pride is not one of the fruit of the spirit, but maybe love is a better word. Although, sometimes it can be a love-hate relationship. But disagreements can sometimes draw people closer together. The church is going through some changes, and that's a good thing. Our culture and community is changing. People are changing. But God never changes. He is and always will be God. I feel very blessed to be elected as an elder, especially from the members at QPEM. They have entrusted in me a great responsibility. But it also has filled my heart with anxiety. I find myself worrying at times, if I can fulfil the responsibilities of an elder, will I be able to live up to the expectations, and trusts. But, I know if I think this way then I will go down the road of a performance based righteousness instead of a grace driven righteousness. I know I will make mistakes and I know there will be hard decisions to make, but I pray that my desires to serve and oversee my fellow brothers and sisters will be driven from my love for the Lord because of what He has done already.

3. Whenever I look at my twin girls, I am reminded of the gift God has given to me. Not because I think they are more special, I love my son just as much, but because how difficult the pregnancy process was for my wife when she had the girls. WIthout realizing it, my wife was having contractions at 26 weeks. If it wasn't for her doctor's recommending frequent checkups (2x/week), she wouldn't have known. They rushed her to the hospital as she was going into labor, their lungs hadn't fully formed yet, but through prayer and by His grace, God held them back til almost 36 weeks. Even at 35 weeks, the doctors discovered that one of the girls wasn't getting enough blood flow, that they had to deliver them now. It was evident to us that through every step of the process, from choosing the right doctors, scheduling of appointments and the support of the church through prayer and words, that God was with us. Through the whole process we knew we had to just trust in God and He delivered.

4. The easiest answer would be to do what the Lord wills for His church. My personal desires would be to help transform this church into a church that will remember its roots and pasts but also prepares it for the future. To be a city on the hill, a light for those seeking a purpose/meaning/community in their lives. I don't know how, but I know God does have a plan and I just have to trust in his sovereignty and go with faith and serve wherever He leads me. I would also like to make changes within the church where we can take better care of our pastors and also keep them here for a long time. That way, people can truly have a long lasting and deep relationships with their pastors.

5. My last thoughts and words for those reading this would be to remember that in God's eyes we are all sinners in need of grace. Even our pastors, elders, deacons, teachers, etc.. are all sinners just like the person sitting next to you. You may see one of us, losing our composure, or possibly making a poor decision. Pray for your leaders, continue to encourage them and show grace when needed.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
장학 위원회
장학금 신청
대 상 : 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교회등록 6개월 이상 교인)
신청기간 : 1월 23일(월) - 2월 20일(월)
신 청 서 : www.kapcq.org에서 다운로드
문 의 : 채현주 권사, 박정봉 집사
신 청 서 다운로드

황태현 집사

– Our church who dedicated their time and effort, to educate and help me grow in faith –

황태현 집사 황지현 집사
찬주(QPEM 대학부) 찬영(고등부) 찬일(고등부)

1. Church responsibilities and activities for 2017. QPEM ministry leader. New Building Committee. New Building Finance Committee. Legal. Multi National Committee.

2. My testimony. It is truly humbling that I was elected to be an elder. Growing up, I was not one of the leaders in youth ministry. In fact, I was one of the kids that would sneak out of the retreat center. Over the years, with the love and prayer of parents, pastors and teachers, I was able to grow in faith. I think of all the teachers, pastors, deacons and elders at our church who dedicated their time and effort, to educate and help me grow in faith, and I feel thankful and indebted. When I look at the elders of our church, I can see that each and every elder is capable, dedicated, and full of faith and godly wisdom. They are great examples for how to serve God, his kingdom and his church.

3. The greatest gift of God's grace I have received in my life. My w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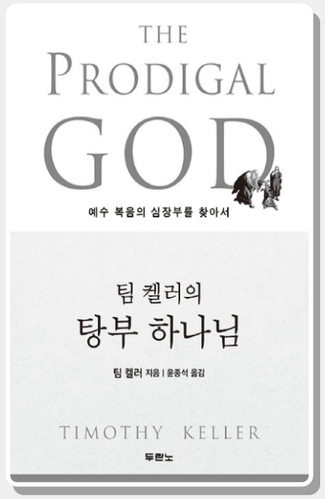
4. What I would like to do for the church. The church is transitioning. What was a Korean church with mostly first generation Korean-Americans now worships God in Korean, English, Chinese and Russian. I would like to make our church more accessible, especially with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5. Request. I ask that you pray for all of the elders elect to have godly wisdom and discernment. I for one can certainly use it.

담임목사 추천도서

01 / 2017

"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 (예수 복음의 심장부를 찾아서)



저자/역자 : Timothy Keller/윤종석
출 판 사 : 두란노
원 서 명 : The prodigal God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성국 담임목사님께서 퀸장 성도들에게 추천하시는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다.

영적 불모지인 뉴욕 한복판에서 일궈 낸 사역을 통해 도심 목회 및 교회 개척의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 준 동시에,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룬 명저로 널리 알려진 팀 켈러목사님. 작가로서의 팀 켈러를 사랑하는 애독자는 물론이고, 막연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그의 책을 선뜻 펴지 못했던 이들까지도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출간되었다.

"21세기의 C. S. 루이스"라는 별칭이 무색하지 않게, 저자 특유의 지성적 문체로 '탕자의 비유'의 본질적 메시지를 파헤친 《탕부 하나님》. 더없이 복음의 핵심을 짚어 냈고, 우리가 '다 안다' 자부하는 성경 속 친숙한 이야기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만큼이나 도발적으로 접근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꼭 한 번 이상 읽고, 반드시 중심에 새겨야 할 메시지다.

저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있다.

이 책은 비유 속 형제의 행동과 이면의 속마음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자기 행복을 얻기 위해 막다른 두 길을 질주하는 이 시대상을 폭로한다. 특히 온 인류가 '탕자'로 낙인 찍은 동생 못지않게 형도 '잃어버린 아들'임을 밝힌다. 팀 켈러는 단호하게 두 아들 다 틀렸음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되찾기 위해 그 크기와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이 '사랑을 탕진하는' 아버지 마음 앞에 우리를 멈춰 세운다. 저자는'탕자'(prodigal son)에 쓰인 단어 'prodigal'(프러디걸)을, 앞뒤 재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자녀에게 다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수식하는 데 과감하게 사용했다. 그만큼 이 책의 메시지는 파격적이다. '자신이 경건하다고 굳게 믿는 성실한 기존 신자'에게 틀에 박힌 종교의 테두리를 부숴 날것의 복음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줄 것이고, 비신자나 초신자에게는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알리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이 책은 '엄격한 종교적 도덕주의자'와 '감각적 쾌락을 좇는 회의론자', 또 그 둘 사이를 오가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형, 예수를 소개하고, 막다른 길에서 우리를 꺼내 '예수'라는 생명 길을 걷게 해 주신 복음의 참 의미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오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을 시작하라. 그리고 매일같이 예수 복음을 누리며 살라. 종말의 날에 마침내 아버지 집,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며, 이책의 주제도 바로 그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W·E·L·C·O·M·E
2016년 12월 새가족 안내

Korean Ministry

김 성 월
2-F12-3
브리스가

서 희, 김 은 희
2-F12-1
마르다,중등부

고 영 민
4-Y-1
청년대학부

강 향 화
2-F13-5
뵈뵈

임 제시카
2-F11-3
마르다

박 성 영
3-FM3-5
아굴라

황 은 정, 최 지 우
3-F16-1
에스더, 영아부

최 용
2-Y-1
청년대학부

이 한 나
2-Y-2
고등부

방 수 진
2-Y-2
청년선교부

정 유 지
1-Y-2
청년선교부

김 성 겸
4-Y-2
청년선교부

황 욱
2-Y-1
청년선교부

김 명 숙
2-F10-1
다비다

Chinese Ministry

付青乐

吴益能

周丽萍

周磊

唐小云

孔宪峰

宋国强

屈志博

左卓群

张希芷

张玉虹

张苍平

房桂芝

时天昊

曹光英

朱成礼

李思仪

李春红

李春英

李静

杨照瑛

杨照谟

梁左文芳

梁德

梁红

汪亦渊

焦玉苹

王依娇

王国容

王宝昇

章文瑛

聂棠平

范丽萍

蔡炎桥

袁祖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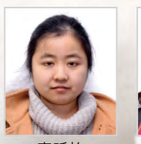
陈意涵

陈承和

陈环珍

饶智萍

高建才


高昕怡

高桂丽

■ **새가족환영회 안내**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지하 친교실**에서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와 함께, 새가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